

충남교육청 학교용지 부담금 448억원 날렸다

충남도의회 장기승 의원, 교육 여건 악화에 따른 도지사·교육감 결단내려야



차일피일 미루며 1년에 10여 쪽 풍문으로 지금하다 보니 충남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 신설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이 50%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가 2004년 예산 A 조교 학교용지 부담금 14억원을 도교육청에 전입해야 했지만, 단 한 편도 주지 않았다. 2005년 천안 B 조교를 개교하기에 앞서 학교용지 부담금 35억9400만원을 전입해야 했지만, 이 학교가 개교한 지 9년이 넘도록 부담금 지급을 미룬 상태다.

이렇게 차일피일 부담금 전입을 미룬 학교만 무려 35개교에 달했다는 게 장 의원의 분석이다.

도가 도교육청에 전입금을 주지 않는 이유는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이유다. 특별회계인 학교용지 부담금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야 도교육청에 전출할 수 있으나, 재정 형편상 예산 반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교육청은

부족한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교육 사업비로 충당하는 등 교육 사업에 크게 작은 부작용이 끈이질 않고 있다.

장 의원은 "학교용지 부담금이 제때 전입되지 않으면서 정작 아이들에게 쓰여야 할 교육 사업비가 용지 매입비로 전용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학교설립 차질과 교육재정 악화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빨리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문제가 매듭지어 달라"며 "도교육청 역시 도를 상대로 더욱 적극적으로 전출을 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따른 교부금 배분 방식 변경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따졌다. 정부의 이 방침이 충남 교육 발전에 빛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정부의 교부금 배분 방식 변경 시 교부금 감액 500억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담 재정 결손

1100억원 등 총 1600억원을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학교 수 비중을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큰 폭으로 높여 교부금을 차등 지급한다.

이는 학교 수 대비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교부금을 더 많이 주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충남의 경우 지리적 여건상 학교 수가 많고 학생 수가 적다는 점이다. 당장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 시행되면 교부금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따른 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위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장 의원의 주장이다.

또 "교육환경 변화로 인한 농산 어촌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학생 수에 따라 교부금을 달리하는 정부의 방침은 도시와 농촌을 차별하는 것이다. 교육마저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내포=이지웅기자

이상민 의원 "사립학교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킬 것"



국회 새정치 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법제사 법위원장, 대전 유성·사진은 2일 사립학교 채용비리를 균질

시키기 위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 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지난 2013년 7월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법안 발의후 지금까지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주요 내용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 중 교장이 아닌 교원의 신규채용은 시도별로 사립학교 교원 임용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그 학력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관할 교육청에 위탁하는 공개 전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정복기자



김태호 의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

보령신항 다기능복합항 개발 필요성 설명

한만 개발지로 지정했으나 유일하게 보령신항만 제외됐다"며 "정부 정책의 신뢰성 차원에서도 추진되어야 하지만 새롭게 부상하는 대 중국 무역과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복합항으로서의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 보령신항"이라며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유기준 장관에게 "환경해시대에 대비해 보령신항을 서해안관광벨트, 대 중국 농수산물 등 의 수출, 레저 중심의 다기능 복합항(무역+크루즈+마리나)으로 개발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 의원과 참석자들은 "충남도와

보령시가 추진하고 있는 복합개발

타당성분석 및 기본구상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하며 "내년 2016년 4월 제3차 전국한만기본

계획 수정계획에 준설로 투기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고 유기준 장관은 "수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태호 의원은 "수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고 유기준 장관은 "수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태호 의원은 "수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고 유기준 장관은 "수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청양군의회, 서울 강서구의회와 자매결연 협정식 가져

청양군의회(의장 심우성)와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이연구)는 9월 2일 11시, 청양군 대회의실에서, 양 의회 간 상호 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자매결연 협정식을 가졌다. 이날 협정식에는, 심우성 청양군의회의장, 이연구 강서구의회의장, 양 의회 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양 의회는 행정·사회·문화·예술·지역경제 등, 사회 전반의 폭넓은 교류를 바탕으로, 기관 및 주민 간 상호 방문을 통한 이해 증진, 지역 특성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한 지역교류 촉진, 지역축제 초청·방문, 특산물 직거래장터, 농촌일손돕기, 체험학습 등, 각종 도·농간 교류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로 협약하였다.

박병철 의원, 대전시 저소득층 아동 급식비 지원 현실화 촉구

방학중 저소득층 아동 급식비 경기도 4500원, 대전 3500원으로 양극화

대전시의회 박병철(새정치민주연합, 대덕구4) 의원이 방학 중 저소득층 아동의 급식비 지원 현실화를 촉구했다.

방학 중 아동급식은 아동이 가정빈곤 가족체계,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부모(보호자)의 실직·질병·가출 및 직업적 특성, 아동학대·방임·유기·부양기피 및 거부, 그밖에 여러가지 사유로 인한 가정사정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 먹는다 해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

지 못하는 경우에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식품 등을 지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박병철 의원은 2월 열린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방학 중 급식 단기가 경기도 4500원, 다음으로 서울·부산·대구·인천·강원·충북·충남·경남·제주는 4000원, 대전은 급식 단기가 3500원으로 아동들의 점심 한 끼에서 조차 지역별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시 저소

득층 가정의 자녀 중 7275명의 아동들이 여름방학 중 3500원으로 점심 한끼를 해결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는 더 이상 '밥 짖는 아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제대로 된 밥 한 끼가 아이의 꿈과 희망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병철 의원은 "대전시가 아이들에게 식당에서 균형 잡힌 점심 한 끼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비를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김정환기자

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이미 실효성과 신뢰를 상실한 감시를 운운하며 엄정한 대처를 차일피일 미루서는 안 된다. 해당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또 "시교육청은 늦어도 한참 늦게 비리교사 15명에 대한 직위제재를 요청했지만 대성학원은 2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대성학원은 대안으로 신입교사 채용을 시교육청에 위탁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엄밀하게 따지

면 '가짜위탁'이다."고 밝혔다.

이에 시당은 "1·2차 시험만 교육청에 위탁하고 대성학원이 최종 선별 단계인 3차 면접시험 권한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편편한 조작모

사 위탁을 통해 지역사회를 우롱하겠다는 발상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서 "시교육청은 직위제재 요청을 무시하고 있는 대성학원에 대한 단호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면피성 품수가 아닌 근본적인 대인을 하루빨리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선기자

아산시의회 제1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가져

조례안·추경·결의문 등 급작한 현안 처리



및 수정가결 하였고 '아산시 인구증가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 했으며, 산업건설위는 조례안 4건 대하여는 원안가결, '아산시 도시기초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결, '용화주공1차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용화주공1차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은 의견청취의견은 '원안가결', 조례안 2건은 원안가결하고, 유기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했다고 보고했다.

의회운영위 소관 2건의 조례안은 일괄 상정해 유령근 의원이 회의운영위 원장은 박성순 의원이 벌의한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유기준 의원이 벌의한 '아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했다고 보고했다.

총무복지위 소관 9건의 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은 일괄 상정해 성시열 총무복지위원장은 성시열 의원의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했다고 보고했다.

총무복지위 소관 9건의 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은 일괄 상정해 성시열 총무복지위원장은 성시열 의원의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했다고 보고했다.

총무복지위 소관 9건의 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은 일괄 상정해 성시열 총무복지위원장은 성시열 의원의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했다고 보고했다.

총무복지위 소관 9건의 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은 일괄 상정해 성시열 총무복지위원장은 성시열 의원의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했다고 보고했다.

총무복지위 소관 9건의 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은 일괄 상정해 성시열 총무복지위원장은 성시열 의원의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했다고 보고했다.

총무복지위 소관 9건의 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은 일괄 상정해 성시열 총무복지위원장은 성시열 의원의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했다고 보고했다.

총무복지위 소관 9건의 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은 일괄 상정해 성시열 총무복지위원장은 성시열 의원의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했다고 보고했다.

총무복지위 소관 9건의 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은 일괄 상정해 성시열 총무복지위원장은 성시열 의원의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했다고 보고했다.

총무복지위 소관 9건의 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은 일괄 상정해 성시열 총무복지위원장은 성시열 의원의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했다고 보고했다.

총무복지위 소관 9건의 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은 일괄 상정해 성시열 총무복지위원장은 성시열 의원의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했다고 보고했다.

총무복지위 소관 9건의 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은 일괄 상정해 성시열 총무복지위원장은 성시열 의원의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했다고 보고했다.

총무복지위 소관 9건의 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은 일괄 상정해 성시열 총무복지위원장은 성시열 의원의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했다고 보고했다.

총무복지위 소관 9건의 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은 일괄 상정해 성시열 총무복지위원장은 성시열 의원의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했다고 보고했다.

총무복지위 소관 9건의 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은 일괄 상정해 성시열 총무복지위원장은 성시열 의원의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했다고 보고했다.

총무복지위 소관 9건의 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은 일괄 상정해 성시열 총무복지위원장은 성시열 의원의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했다고 보고했다.

총무복지위 소관 9건의 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은 일괄 상정해 성시열 총무복지위원장은 성시열 의원의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했다고 보고했다.

총무복지위 소관 9건의 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은 일괄 상

“정부 재정지원사업 중부권 최고… 산학협력 선도”



대전대학교(총장 임용철)는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교육 시스템으로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워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로 개교 35주년을 맞은 대전대는 ‘교육 브랜드 2020’을 통해 ‘V-Plan’을 수립하고, 대학교육 과정 및 지원 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성화를 추진, 교육 역량 강화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대전투데이는 대전대 수시모집 특성과 정부 재정지원 사업 선정 등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도전 2018 수립

현재 대전대학교는 지속발전 가능한 대학으로서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밟전계획인 [도전2018]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도전2018은 대전대학교의 비전과 전략이념을 달성하고 교육목표와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한 중기발전계획으로서, 이미 시작된 대학 간의 생존경쟁에서 한발 앞서 나가며, 우리 대학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향후 5년 동안 성취해야 하는 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대전대학교는 ‘교육 브랜드 2020’을 통해 ‘V-Plan’을 수립하고, 대학교육 과정 및 지원 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성화를 추진해 왔으며, 차별화된 교육브랜드를 구축하고 교육역량을 강화해 왔다.

이를 통해, 대전대학교는 ‘3S 특성을 갖춘 교양 있는 정의적 전문인’을 양성하고자 한다. 3S란, 자기주도적 주체성(Subjectivity), 디자인적 사고에 기초한 포괄적 지성(Soft-Power), 실용적 전문역량(Specialty)을 뜻하는 것으로 이러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기본에 충실한 교육과 특별한 경험을 더하는 다양한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교육의 발전 목표를 위해 대전대학교는 리버럴 아츠 칼리지를 대학의 발전 목표 중 첫째로 삼고, 현재 특화된 교양교육과 ‘기초학문’ 강화를 통한 한국형 리버럴 아츠 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미래형 교육모델이 될 ‘혜화 리버럴 아츠 칼리지H-LAO’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H-LAO는 대전대학교가 한국형 리버럴 아츠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한 단과대학으로, 학제간 장벽을 허물어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을 접하고 배울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을 구축하여 이를 통해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융·복합적 사고력과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은 물론, 창의적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2016학년도 수시모집 개요·특성

대전대학교는 2016학년도에 총원 2,386명 가운데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77%인 총 1,834명(정원내외)을 선발하고 정시에 55명을 모집한다. 전형 간 복수지원을 허용하며, 원서접수 기간은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수시전형의 선발방법은 교과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 교과전형,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실기고사 또는 입상/어학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실기위주 전형으로 구분된다. 수험생은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전년도 입시결과를 조회할 수 있으며, 다음의 주요사항을 참고하여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부 교과전형은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교과전형(1516명)·지역인재(236명), 교과성적(출결 포함) 80%, 면접고사 20%를 반영하며 일부 모집단위(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응급구조학과, 한의예과)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 교과전형1과 지역인재 특별전형은 교과성적(출결 포함) 80%, 면접고사 20%를 반영하며 일부 모집단위(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응급구조학과, 한의예과)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 군사학과 특별전형의 선발방법은 전년도와 동일하지만, 1차 선발인원을 3배수에서 3.5배수로

확대하였고 모집인원 역시 5명 증가한 42명을 선발한다.

▶ 면접고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에 실시함으로써 수험생에게 인지부담 완화뿐 아니라 예상되는 수능성적을 바탕으로 정시 지원 가능성 제공한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혜화리더십(133명), 고른기회(80명), 단원고(21명)를 통해 수험생의 꿈과 끼를 바탕으로 학과 특성에 부합하는 인재를 선발한다.

▶ 혜화리더십전형은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을 확대했으며 심층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서류종합평가 60%, 교과성적 40%를 반영하여 선발한다. 또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고른기회 특별전형은 기존의 지원자격 이외에 소이양변자, 서예5도 학생, 디문학가정 자녀, 직업군인 자녀, 만한도를 추가 확대하여 모집하며 혜화리더십전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선발한다.

실기위주 전형은 예체능계열 모집단위 및 특기자(어학·문화·서예·체육)를 선발하는 전형으로 상대적으로 교과성적 반영비율이 낮기 때문에 수험생은 해당 모집단위에서 실시요구하는 실기고사(입상/아학 실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교과성적은 전형별로 반영비율이 상이하긴 하나, 전형요소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다음의 반영방법을 참고하거나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성적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 한의예과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교과군별 최우수 3과목(이수단위 20이상의 1학년 1과목, 2·3학년 2과목)을 선택 반영하며 모집단위별 교과군 반영비율을 적용한다.

▶ 동일과목이라도 학기가 다르면 개별 이수과목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수험생은 좀 더 유리한 결과값을 신출할 수 있으며, 사회와 과학 교과군을 하니의 교과군으로 반영함으로써 수험생의 교차지원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 한의예과는 예체능과목을 제외한 전 과목을 반영하며 학년별 반영비율(1학년 30%, 2·3학년 70%)을 적용한다.

◆특화된 교육으로 융·복합 인재를 키우는 학과

글로벌융합창의학부(학부장 염명숙)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융합창의인재 양성을 목표로 융복합 중심의 한국형 Liberal Arts College 교육 체계와 국제적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 전문역량 교육 체계를 갖추고 있다.

▶ 범학제적 교육과정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기숙형 대학(residential college)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체험의 장을 마련하여 인성, 지성, 감성이 조화를 이루는 전인적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 글로벌통상학과는 두 역의 존도가 높은(OECD 국가 중 1위) 국내환경을 반영하여 국제언어학과 국제통상학과, 국제물류학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인재를 양성합니다. 학생들은 외국어 능력을 기본으로 현지 시장의 흐름을 읽고 개척할 수 있는 창조경제의 견인 역할을 준비하게 된다.

▶ 국제언어학과는 창조 경제를 선도하고 지역사회 및 지역기업에 기여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에게 반드시 필요한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능력과 지역학 지식을 균형 있게 섭



법하는 학과이다. 국제통상학과와 카운터파트를 이루어 글로벌 비즈니스 학부를 구성하며, 재학생은 1인 2전공(국제언어+국제통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함으로써 국제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다지게 된다.

▶ 국제통상학과 : 국제통상학과는 글로벌 비즈니스에 관련한 국가와 기업의 통상관련 이론과 실무를 학습한다. 즉, 기업의 수출입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국내·외 무역환경과 관련 이론과 실무를 학습하고, 국제사회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전문적 글로벌 비즈니스인을 양성한다.

IT융합공학부는 컴퓨터공학과,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정보보안학과로 구성되어 유비쿼터스 사회에 부합하는 ICT(정보통신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ICT융합과학관과 산학협력관을 신축하고 현장·실무 연계형 교육과정을 계획함으로써, 학생들은 전 산업분야의 ICT(정보통신기술)내재화를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 컴퓨터공학과는 정보사회에서 ‘가장 뚝龌은 선택의 기회’ 부여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의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수많은 전문적 정보기술능력을 갖춘 인력을 배출했다. 학생들의 전문성 향상과 심화학습을 위하여 컴퓨터 시스템 및 통신보안, 소프트웨어 공학 및 멀티미디어, 데이터통신 및 네트워크, 프로젝트 관리 및 소프트웨어 설계, 지능시스템 및 영상분석, 컴퓨터 그래픽스 및 가상현실, 데이터 베이스 및 정보 시스템 등 7개 분야의 다양한 연구 활동 영역을 중심으로 각종 학술 세미나와 멘토링 시스템을 통한 학생들과의 밀착지도가 이뤄지고 있다.

전자·정보통신공학과는 기존의 정보통신공학과와 i-전자공학과가 통합하여 i-융합 분야를 선도하고자 2015년도에 첫 신입생을 모집하는 학과이다. 기존 정보통신공학과는 1992년에, i-전자공학과는 1996년에 설립되어 21세기 첨단 i-분야를 주도하며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해 오다, i-융합이라는 시대적 조류를 선도하기 위하여 두 학과가 통합하여 한 단계 도약을 추구하고 있다.

정보보안학과 : 정보보안학과는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보안, 인터넷 보안, 암호론, 정보보호 윤리 등 안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이론 및 실무 교육을 통해 국내 최정상급 정보보호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그밖에 특성화 학과

교육부의 CK-I 사업 (University for Creative Korea)에 선정된 대전대 국가안전방재 전문 인력 양성 사업단(단장 박종화 교수) 관련 학과(군사학과, 경찰학과, 소방방재학과, 건설안전방재공학과), 보건계열 학과 등이다.

▶ 대전대 군사학과는 군사 전문성과 장교의 자질을 겸비한 우수한 장교 양성과 군사학의 체계적 연구와 발전을 목표로 육군과 협약하여 국내 최초로 개설된 민간사관학교이다. 따라서 군사학과의 교육목표는 21세기 국가안보 환경과 미래 전쟁 환경에 요구되는 전문직업장교 양성과 군사전문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지식의 배양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군사학을 제1전공으로 하고 제2전공은 일반 학문 분야를 선택하여 복수전공으로 하는 양한 사례를 적용한다. 또한 직업군인에게 필요한 자질을 구비하기 위한 특성화 교육과 개인의 잠재 역량 계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어 등 5개 분야

에 대한 졸업인증제를 시행한다.

▶ 경찰학과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경찰 활동 전반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실용학문이다. 경찰행정 영역에서는 경찰학입문, 경찰조직관리, 경찰인사관리, 경찰정책학, 비교경찰론, 지역 사회 경찰활동 등 경찰행정에 관한 이론적·실천적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 방재학부 소방방재학전공은 국가의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소방행정공무원,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자연재해전문가, 방재 및 복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소방방재학은 최근 안전문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신설 학문으로서, 소방·토목·건축·기계·전기 및 화학공학 등 다양한 분야가 접목되어 있는 특성화된 종합 학문이다.

▶ 건설안전방재공학과는 주로 지반과 연관되어 발생되는 재해에 대한 방재를 다루는 학문이며, 자연재해(지진, 사면 붕괴 등), 국가건설사업(도로, 철도, 지하철, 댐, 터널, 지하원유 비축기지 등)과 연관된 재해 및 환경재해(수질오염, 광산재해, 폐기물 매립 등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보다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전문방재도를 양성하고자 전국 최초로 특성화된 학과이다.

▶ 한의·예과는 1982년에 설립된 이래 현재 까지 3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동안 교수, 학생 등 구성원 모두의 부단한 관심과 노력으로 대내외적으로 명실상부한 기틀을 구축해 왔다. 그 결실로 1996년도 대교협에서 주관한 전국 한의학과 학과평가에서 ‘가장 뚝龌은 선택의 기회’로 선정되었고, 2004년도 종양일보에서 주최한 전국대학평가 한의학과 평가에서 특성화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2008년도 대교협 주관 전국 한의학과 학과평가에서 새재 우수평가를 받아 국내 굽지의 학과임을 과시했다.

▶ 간호학과는 1993년 대전지역 사립대학 간호학과 중 가장 최초로 설립되어 21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1999년 대학 교육협의회 간호학과 평가에서 대전지역 간호학과 중 유일하게 학생 부문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고, 간호학과 과정, 특별학과(야간) 과정, 간호학과 석사과정 및 전문 간호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등 간호학과의 모든 교육체계를 갖추고 중부권 지역의 명문 간호학과로 인정받고 있다.

◆주요 정부 재정지원 사업 3개부문 선정 (LINC, ACE, CK-I)

대전대학교는 교육부의 국책 사업 경쟁에서 LINC(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ACE(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CK-I(지방대학 특성화사업) 3개 부문과 국토부에서 선정된 글로벌 블루인력 양성사업에 선정되는 등 다양한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대전권 사립대학 중 유일한 성과로 향후 최대 5년 동안 26억 이상을 지원받는다. 대전대는 대학의 제1목표인 ‘잘 가르치는 대학’, ‘잘 지도하는 대학’, ‘취업 잘 시키는 대학’의 명성을 얻고 있다. 또한 대전대학교는 산학협력과 지역발전까지 이끌어내는 지역의 명문대학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LINC사업은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공생발전을 통한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창출하고 확

산해 나아가는데 목표가 있다. 대전대학교는 현장밀착형 우수단계로 재평가를 받아 연간 40여억원 이상을 지원받는다. 대전대학교는 2014년 8월 13일에 새빛(CEBITCO) LINC사업단의 출범식을 개최해 LINC사업 운영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LINC사업 운영지원비는 현장실습과 캡스톤디자인을 비롯해 창업지원, 기족회사 지원 등 다양한 산학협력 분야에 사용된다. 대전대학교는 LINC를 통해 한방바이오·ICT·문화융합비즈니스를 선도 분야로 지정해 28개 학과에 대해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대전대학교의 모든 학과는 창업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LINC사업단에서는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창업캠프, 창업경진대회 등 다양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업 동아리의 육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CE사업은 대전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대전대학교는 ‘교양심화와 융·복합교육을 통한 글로벌 창업의 인재 양성’이라는 이름 아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고지원 되는 약 22억원의 예산은 대전대학생 교육에 집중 투자된다.

핵심역량으로는 과학적 사고, 의사소통, 글로벌, 자기주도, 협동, 전문 등 꽃 끼를 선정해 이를 중점적으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한국형 Liberal Arts College 모델’ 실현과 융·복합 교육을 선도하는 대학으로의 재도약, 단계적 비전교육을 통한 자주감·획득 및 능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CK-I사업에는 행정학과가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활동화지원 전문인재양성사업단이 지역공동체 사업단과 군사학과, 소방방재학과, 자연재해학과, 경찰학과가 참여하는 국가안전방재전문인력양성사업단이 선정됐다. 2개의 사업단은 각각 특성화 기반구축에 힘쓰게 되며 교과과정 설계, 교재개발,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지역공동체 사업단은 공공선의 철학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춘 전문가 양성 및 현장감각과 실천기술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연간 약 3억원의 예산을 사용한다.

국가안전방재 관련 특성화 대학은 전국에서 대전대학교가 유일하다. 대전대학교는 3중 안전시스템을 통한 Safety Korea를 구현하고 신규 학문단위 운영을 통한 국가안전방재 분야의 공공자원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며 연간 약 8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게 된다. 사업단 특성화 전략에 따라 국가안전방재부가 신설돼 각 학과 소속의 학생들은 복수·부전공으로 국가안전방재학을 전공하게 된다.

강원창 대전 입학처장은 “2016학년도부터 출범하는 혜화리버럴아츠칼리지H-LAO는 국내 최초의 한국형리버럴아츠교육을 구현하는 중심축”이라며 “기초학문심화교과의 튼튼한 기본위에 융·복합 전문역량교육을 강화하는 한국형리버럴아츠교육모형은 ‘3S’를 겸비한 21세기형 청의인재를 양성하는 우리 대학만의 차별화된 교육모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리버럴 아츠와 함께 각종 정부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둔촌한 기본을 익히고 특별한 경험을 더해 교양 있는 청의적 전문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교육모형을 운영하겠다”며 “현재가 아닌 미래를 내다보며 항상 성장하고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정●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3일
오후 2시 엑스
포시 민광장에
서 개최되는
2015년 장애
인문화예술축제 참석.

대전국제와인&주류전시회



김인식 대전시
의회의장= 3
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2층
로비에서 열리
는 '2015 대전
여성취창업 박람회' 참석, 오후
3시 대전부역전시관에서 열리는
'2015 대전국제와인&주류전시
회' 참석.

보문미술대전 시상식



박용갑 중구청
장= 3일 오후
4시 중구문화
원 뿌리홀에
서 개최되는
'제17회 보문
미술대전 시상식' 참석.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장종태 서구
청장= 3일
오전 11시 30
분 전 민동
'전천후 게이
트볼장'에서
'제21회 서구청장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참석.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위촉식



허태정 유성구
청장= 3일 오
전 10시 구청
중회의실에
서 열리는 공
동주택 품질
검수단 위촉식 참석.

목요 현장대화의 날



박수범 대덕구
청장= 3일 오
후 9시 대화동
외 3개소에서
열리는 목요
현장 대화의
날 참석.

김명수씨 대한민국 명장 선정

대전시는 '2015년 대한민국명장'에 김명수(49·대덕구 송촌동 거주) 삼진 엔지니어링 대표가 주조직 종에서 숙련기술인의 최고 영예인 '2015년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김명수 산진엔지니어링 대표는 고등학교 재학 중 지방경기대회 출전하여 주조직 종 금메달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31년간 현재보다는 미래 발전을 위하여 주조 분야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과 관련 기술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하고 기여한 것이 인정됐다.

시는 2013년 이후 명장 선정자가 배출되지 않아 고향과 기술의 본고장으로서 위상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올해 명장을 배출함으로써 고향 기술의 메카로써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 명장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15년 이상 산업 현장에서 관련 직종에 종사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에게 수여되며 명장에게는 대통령 명의의 증서와 휘장이 주어지고 일시장려금 200만 원 지급, 기술선진국 시찰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이영호 기자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순항'

市, 국토부 TF팀 구성 등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 개정 목표 추진 중

민선6기 역점시책인 대전 도시 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이 친환경의 장점에 공감한 전국의 각 자치 단체가 적극적으로 트램 도입에 나서면서 신교통수단으로서 집중 조명되면서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트램의 법적 제도정비를 위한 '전문가 합동 TF팀'을 구성해 올해 말까지 정부 최종(안)을 확정한

뒤 2016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트램 방식 결정 이후 노면전차 관련법령이 미비하다는 점이 트램 추진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정부 부처가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트램 건설에 청신호 가켜진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서도 법 개정에 나서 지난 6월 서울시의

회 의원 20명이 위례신도시 트램 건설 조속추진을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건의안을 발의해 국회 및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대전시는 현재 추진 중인 도시 철도 노선 기본계획 추진용역 과업의 일환으로 관련 법령 개정(안)을 도출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해 부산과 울산 등이 트램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

를 위해 활발한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일부에서 상상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트램 관련 법 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상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시도 자체개정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관련 법 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유성구 행복팜 프리마켓 운영

건강한식문화 만드는 커뮤니티 활성화 마련

대전 유성구가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도시형 장터인 행복팜(farm) 프리마켓을 운영한다.

구는 오는 10월 10일부터 25일 중 토요일과 일요일에 유립공원 잔디광장에서 행복팜 프리마켓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로컬푸드는 단순한 비른 먹거리에 대한 문제가 아닌 생활 속의 중요한 음식문화로 인식이 높아졌다"며 "생산, 소비의 선순환 구조로 주민건강과 지역경제 키우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일상적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는 달리 로컬푸드로 만든 수제요리,

김태선기자

중국 관광객유치 협력 마케팅

대전시가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와 공동으로 3일부터 8일까지 중국 심양시와 대련시에서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직접 홍보 마케팅에 나선다.

설명회단은 지역 인비운드 여행사 및 관련업체, 자자체 공무원, 한국관광공사 대전충남 및 세종충북 협력지사, 대전관광협회 등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협의회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주최하고, 대전시가 대표로 참가한다.

이번 중국 현지마케팅에서는

이울려, 주택재건축 조합에서는 이번 사업시행변경인가에 이어 앞으로 진행될 감정평가 및 조합원 분양신청 등에 따라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이주 및 철거에 들어가고, 내년 7월 일반분양에 들어가 오는 2020년 초 준공 및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시행변경인가로 사업추진이 걸림돌 없이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원활하고 빈틈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재건축조합과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호 기자



전문교육기관위탁교육(경비지도사과정) 입교식 대전지방보훈청(정상 이영호) 대전제대군인자원센터가 지난 1일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2015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경비지도사과정'을 중앙능력개발원(대전 중구 소재, 원장 최도희)에서 개최했다. 중앙능력개발원의 경비지도사과정의 교육기간은 1일부터 11월 3일까지 2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중구-버드내미을@-중구자원봉사센터

아파트 가족봉사단 업무협약 체결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2일 버드내미을아파트 가족봉사단 대표 육예숙 및 (사)중구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옥화)와 함께 구청 중회의실에서 '사랑해요! 중구 아파트 가족봉사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버드내미을아파트는 4200여 세대 13,900여 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단지로써 가족봉사단은 단지내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봉사 수요를 거주민들이 해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봉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버드내미을아파트에서 는 기족봉사단 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20세대 50여 명의 주민들이 기족봉사단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많은 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기족봉사단은 단지내에 순수 마련한 '아동돌봄 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10세대 30여 명이 참여하며 직장맘을 위한 아동 돌보기, 방과후 학습지도, 책 읽어주기, 1대1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 아동중심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박용갑 청장은 "아파트 가족봉사단은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문제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모범적인 지역공동체 운영사례"라며 "개인주의적 성향이 짙은 아파트 단위의 가족봉사단을 확대해 새로운 지원봉사 모델로 육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구는 중구자원봉사센

2014년도 재정운용 결과 공시

市, 홈페이지에 공개… 재정운용 투명·책임성 강화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용운동 저층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 사업이 지난달 31일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라 사업추진에 한층 더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시행변경인가로 당초보다 세대수 증가 및 평형 조정이 이루어져 지하2층~지상34층, 18개동 2,244세대의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로 건립되고, 전용면적 기준 ▲42㎡형 100세대 ▲59㎡형

금관련 현황, 출자·출연기관 현황, 성인지결산 등을 시범 반영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시시기를 연 2회 예산 및 결산기준으로 확대하였고, 재정공시 결과를 행정자치부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수요자 입장에서 정보의 접근 및 비교 판단이 용이하도록 메뉴를 재구성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재정공시 항목의 확대는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정공시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미니쉼터·여성안심 무인택배함·안심밸·고마도서관등

서구 '여성친화 행복 마을' 조성

'대한민국 대표 여성친화도시'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가 오는 12월까지 「여성친화 행복마을」이하 「행복마을」을 조성한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2일 행복마을을 시범 조성지인 도모동 배재대 후문 인근 지역(배재로 91번길 일대)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본 후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서구 건설"에 박차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회적 약자를 배려한 '살고 싶은 행복마을 만들기'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번 행복마을을 시범조성지는 대학교 후문 주변, 자취생 등 유학생이 다수 거주하는 노후아파트·원룸·혼합지역으로, 「여성친화도시 종·장기계획 및 발전방향 수립 연구용역」 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제일 높게 나타난 곳 중에 선정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관·학의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선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기록으로 최대한 많이 계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www.daejeontoday.com

전년도 회계연도 지방재정 운용결과 공개

공주시, 동종자치단체 대비 채무액 342억원 적어... 지방재정규모는 매년 증가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지방재정 운용 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돋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4 회계 연도 지방재정 운용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2014년도 지방재정공시는 재정운용의 전반적인 사항인 '공통공

시'와 주민숙원사업 등 시민의 관심사항 10개의 사업에 대한 '특수공시'로 구분된다.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공주시의 자체 수입과 의존재원, 지방채, 예치금을 포함한 총 실집규모는 7,526억원으로 2013년에 적었으며 시민 1인당 채무액은 16만원,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49만 4천원이다.

재정자립도는 13.45%이며(전국평균

43.9%),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재정자주도는 57.1%(전국 평균 68.4%)로 나타났다.

또한 채무는 182억원으로 동종자치단체 평균 채무액 524억원보다 342억원이 적었으며 시민 1인당 채무액은 16만원,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49만 4천원이다.

공주시 기획담당관 예산팀 박우선 담

당은 "공주시의 실집규모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채무는 감소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재정 공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주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주=정상범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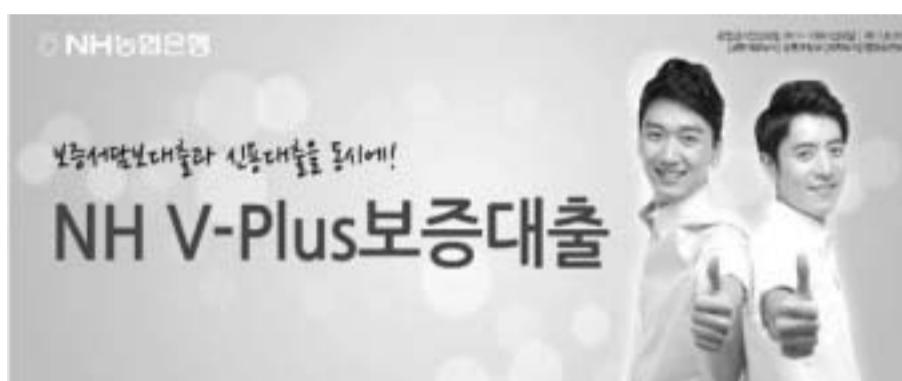


아산농협, 어린이 농촌 문화 체험교실

농협중앙회 아산시지부(지부장 양태길)

는 2일, 영인초등학교(교장 이윤종) 학생 40명을 공주시 풀꽃이랑미를 음식교육전문농장으로 초청해 농촌 문화 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농촌 문화 체험교실이란 농작물의 퍼종·수확 등의 농사체험과 더불어 직접 수확한 농산물을 이용한 요리 실습을 통하여 농작물이 되는 과정을 몸소 체득하는 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 체험에 참가한 학생은 1학년 19명, 2학년 21명 총 40명으로 구성하여 두부 만들기와 공주특산물인 밤경단 만들기를 체험했다.

NH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 미래가치 우수기업 지원 확대



를 최대 0.4%p까지 지원해주며 V-Plus 협약우대 0.7%p 등 기존 거래실적에 따라 최대 1.1%p까지 대출금리 우대 및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 12일까지 추석명절 특별우대금리 0.2%를 포함한 최고 1.3% 우대금리를 적용해 모두 3조원 규모의 추석자금을 지원한다.

이강신 본부장은 "NH V-Plus 보증대출 판매 및 추석명절 3조원 특별 우대금리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충남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일정서는 농협은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병배 기자

업무협약 체결로 보유지식이나 기술가치가 우수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보증서 담보대출과 함께 신용대출을 추가 지원하는 복합형 금융 상품이다.

'NH V-Plus 보증대출' 지원 기업체에는 농협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료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센터-충남하나센터와 업무 협약



아산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센터 행 복한 동행(센터장 김윤태)은 지난달 31일

쌍용종합사회복지관 부설기관인 충남하나센터(센터장 김윤기 신부)와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 체결은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여 기관 간 종복행사를 지향하고 실질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협약 체결을 통해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는 등 두 기관이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

김 센터장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더욱 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생활개선청양군연합회 직거래 장터 열어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장터에서는 고춧가루, 건고추, 청국장, 간장, 보리고추장 등의 품목과 추석명절을 앞두고 구기자한과, 구기자주, 토종닭, 잡곡 등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오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청양에서 개최되는 제16회 청양고추 구기자축제 흥보활동도 함께 실시됐다.

한영숙 회장은 "청정 청양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은 안전성이 보장된 우수한 품목이 많다"며 "회원 모두가 건강한 식문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역의 농·특산물의 안정적 판매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직거래장을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방음벽 설치'로 선로변 인근 주민 생활환경 개선

철도공단, 경부선 칠곡군, 영동군 선로변에 방음벽 설치 완료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선로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착공한 충북 칠곡군, 영동군 관내의 방음벽공사 설치 및 보완공사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이번 방음벽 시공과정에서는 주민참여제도(PI : Public Involvement)를 도입해 시공 전 주민설명회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반영했으며, 한 예로 칠곡군의 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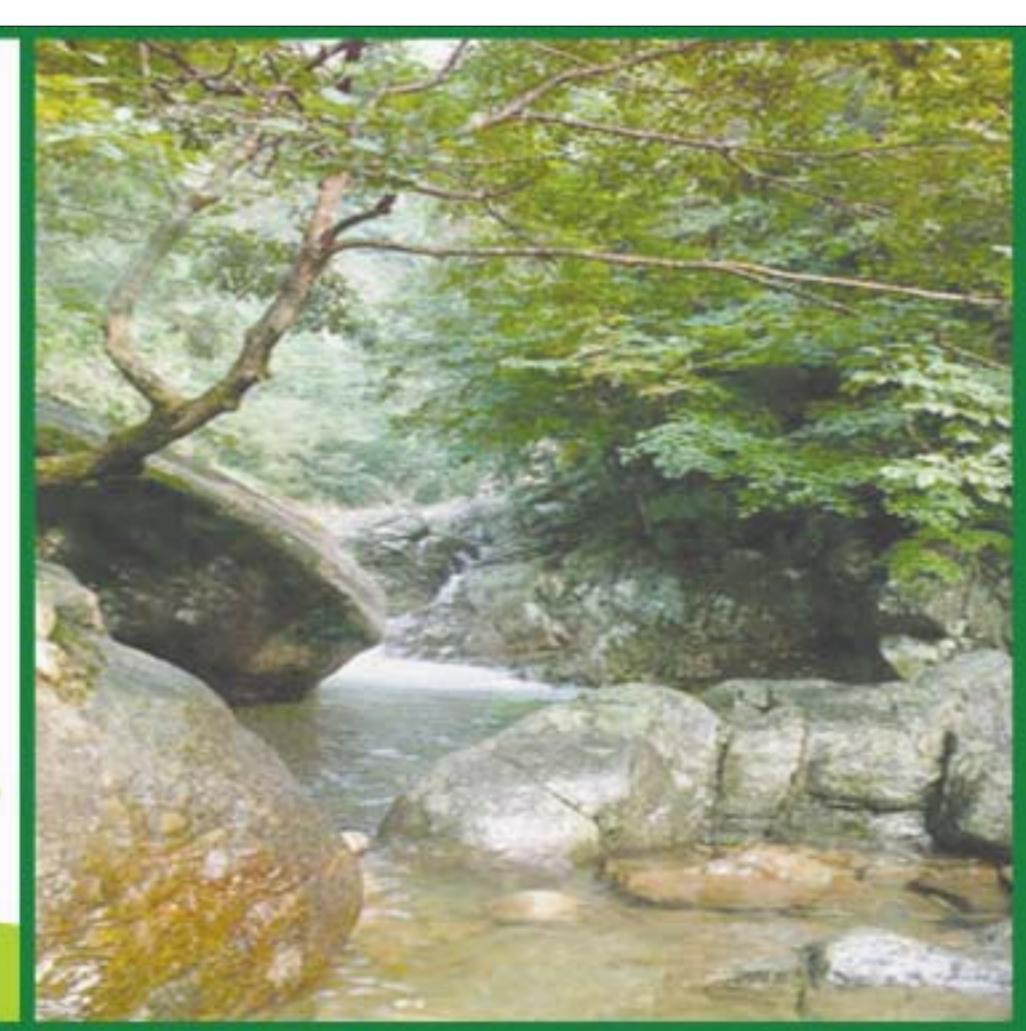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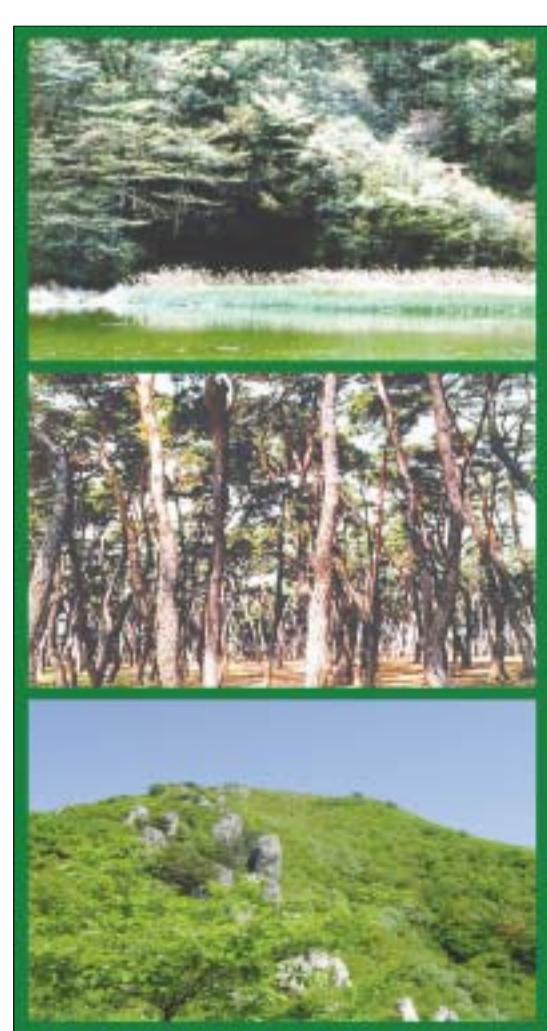
관수도원 주변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방음벽높이를 조정해 큰 효과가 있었다.

충청본부 노병국 본부장은 "방음벽 공사가 원공립에 따라 칠곡군, 영동군의 선로변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좋아 질 것으로 기대되고, 도시미관을 고려한 방음벽으로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대전투데이 9주년 을 축하합니다.

대전투데이 후원회 일동





대전보건대, 대학구조개혁평가 '최고등급'

대전보건대학(총장 정무남)이 지난 달 31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교육부에서 추진한 이번 평가는 2022년까지 대입정원 16만 명 감축을 목표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 경제적인 입학정원 감축과 재정 지원 제한 등을 두는 만큼,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운 것으로 보인다.

전국 137개 전문대학 중 2위를 차지한 대전보건대는 98.1점을 받아, 1위와는 0.18점의 근소한 차이

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보건대는 지난 2011년 교육부가 지정한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WCC(World Class College) 사업에서도 최초선정 7개 대학 중 5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는 긴급체포 인원 25,716명의

전 세계 10,000여 종의 와인과 함께 '대전국제와인페어' 개막

초기을 하늘을 외인의 향기로 물들일 국제행사



2015 대전국제와인페어가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대전무역전시관, 한밭립 광장,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최근 3년간 경찰에 긴급체포 되었다가 영장 미청구 또는 영장기각으로 48시간 이내에 석방된 국민이 9천 5백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체포는 행정법인 아닌 피의자에 대해 사전영장을 받을 여유가 없을 때 수사기관이 그를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석방해야 한다. 전국적으로는 2013년에 증가했다가 2014년에 다시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는데, 제주(119.35%), 대전(61.84%), 전남(51.38%), 경북(44.96%), 광주

(10.71%)만 2년 연속 증가했다.

부산은 2013년 145% 감소했다가 2014년 59% 급증했고, 전북은 2013년 23.75% 감소했다가 2014년 196.7%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36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2,247명, 경남이 62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긴급체포 대비 석방율(영장 미신청 + 영장기각)은 울산이 무려 52.64%로 체포한 인원 2명 중 1명꼴로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고 석방했다. 서울이 42.37%, 대구가 40.73%, 대전이 40.72%로 그 뒤를 이었다.

유대문 의원은 "긴급체포의 40% 가까이가 영장 미청구 또는 기각으로 석방된다는 것은 경찰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긴급체포는 영장 없이 인신처

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 없는 시민이 피해 받지 않도록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면서 "사전영장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긴급체포 할 수밖에 없지만 무고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명확한 정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환기자

한국영상대, 오는 24일까지

수시1차 모집

방송영상특성화대학인 한국영상대학교(총장 유재원)가 오는 24일까지 2016학년도 수시1차 신입생을 모집한다.

한국영상대는 이번 수시1차에서 영상연출과를 포함한 예체능계열 17개과와 유아교육과를 포함한 인문사회계열 6개과 등 총 23개과 895명을 선발한다.

29일 한국영상대에 따르면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으며 명실공히 국내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된 이 대학은 신입생 장학제도를 대폭 확대하며 우수신입생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고 한다.

한국영상대 장학금으로는 ▲우수인재 육성 장학금 ▲아학성적 우수장학금 ▲교육협약장학금 ▲끼꾼꿈전형입학장학금 등 총 14종의 교내 장학금을 통해 학생에게 발표 시 장학생을 선발한다.

정상범기자

선문대, 대한민국 최우수 대학으로 평가

2015 대학구조개혁 최우수 A등급



지난달 31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선문대학교(총장 황선조)가 A등급을 받았다. 이로써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우수 대학으로 평가받아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문대학교는 2012년 주신학글로벌공동체 선도대학을 대학 비전으로 선포한 후 산학협력친화형 교육중심대학으로 기틀나기 위해 학교법인 선문학원, 대학본부,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이 노력해 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그간의 노력들의 결과라고 학교 관계자는 말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평가지표 4개 영역 12개 분야 전부문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정량

지표의 경우 자체분석결과 전국 5위 이내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문대학교의 교육여건이 매우 탄탄하다는 방증이다.

교육기본여건을 평가하는 전임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에서 정량지표 만점의 평가를 받았다. 선문대학교는 산학협력 중심교원을 포함하여 전임교원 351명 모두를 정년트랙으로 임용하여 우수교원을 확보하고 있다. 또 교사확보율은 146%로 교육부 기준을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교육비 환원율은 159%, 정학금지급율은 20%로 전국대학 최고 수준이다.

아산=리량주기자

추석맞이 성묘할 때 임도 이용하세요

중부지방신림청, 9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국유임도 한시적 개방



중부지방신림청(청장 남승희)은 민족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을 맞아 임도를 활용하려는 벌초와 성묘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전, 세종, 충남·북도 내 국유임도를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임도는 목재운반이나 산불진화, 병해충방제 등 산림경영과 보호를 위해 만든 산림 내 도로로, 산불과 위험스레기 투기, 임산물 무단채취 등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국민안전

을 고려해 평상시에는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추석을 맞아 벌초와 성묘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4개 노선, 369km에 이르는 국유임도를 2015년 9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1일간 한시적으로 개방한다.

중부지방신림청 남승희 청장은 "개방기간 중에는 국민들이 임도를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정상범기자

공주시 '흥미진진, 공주시민대학' 성황리에 개강

1일 500여명의 시민 참여, 개강식과 함께 첫 강연 호황

오는 8일에는 오후 3시부터 혜민스님 강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품은 흥미진진 공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품격 높은 교육문화 실현을 통한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공고히하기 위해 마련된 '흥미진진 공주시민대학' 현판을 걸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어 진행된 첫 교양강좌에는 평범한 주제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개강식에는 오시덕 공주시장과 공주시 의회 이하선 의장을 비롯해 500여 명을 훌쩍 넘는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흥미진진, 공주시민대학' 현판을 걸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 교양강좌에는 공주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입장은 선착순 500명이다.

좋은 말과 조언으로 사람들에게 꿈과 힘을 불어 넣으며 스타강사로 활동하는 더블유인사이츠 김미경 대표가 강사로 출연 '꿈으로 성장하고 운명으로 단단해져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날 개강한 공주시민대학은 오는 11월 24일까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고자 교양강좌 9회를 비롯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 육지지 등을 바로 알고 애학심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지역의 리더를 육성하고 시민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지역혁신 리더 과정과 시민문화선도과정을 각각 운영한다. 특히 오는 8월 오후 3시부터 고마컨벤션홀에서 진행될 두 번째 교양강좌에는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혜민스님이 강사로 나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으로, 또한 한 번의 성황을 기대케 하고 있다.

이 교양강좌에는 공주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입장은 선착순 500명이다.

공주=정상범기자

우체국과 eBay, 중소기업 해외 수출 지원 나선다

온라인 수출 무료 교육·EMS 요금 5% 할인 제공

충청지방우정청(청장 이승재)은 이베이코리아(대표 변광윤)와 손잡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돋이는 이베이 포 비즈니스(eBay For Business) 온라인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 사업은 온라인 수출에 관심은 많았지만 해외 판로 개척과 상품 판매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국내 판매에 막혀 있던 기업을 선별해 전세계 200개국 3억명 이상 회원을 보유한 글로벌 마켓인 eBay.com에 상품 등록부터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

내고 있다.

충청지방우정청 관계자는 "eBay를 통해 해외 판로를 개척한 고객 중에는 국내보다 해외 판매로 성공 사례가 적지 않다"며, "국내 판매에 막혀 물려 있는 많은 중소기업이 온라인 수출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11일까지 인근 우체국에 e-mail 또는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류 및 전화 인터뷰 심사를 거쳐 해외 판매 전망, 기업의 관심도 등을 평가해 2개월 만에 약 4만 불의 판매 실적을 기록하는 등 기시적인 성과를 보인다.

송병배기자



아산시 어린이급식센터, 제1회 직원역량강화교육 공동 개최 지난달 26일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관내 11개 지역(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금산군, 홍성군, 태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들의 무역량 강화 교육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aT, 한국 농식품 수출 확대 및 할랄시장 개척의 발판 마련

중동시장 공략 위한 아부다비 사무소 개소



중동지역은 한국 기업들이 1970년대 건설분야로 진출하면서 이른바 '중동 봄'을 일으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밑거름이 된 지역이다. 또한 최근 급성장세에 있는 할랄식품의 대표 시장이기도 하다. aT는 아부다비 사무소 개소식과 더불어 현지 대형 유통업체인 알마야(AL MARYA)와 MOU를 체결, 중동지역에서 생소한 한국 농식품의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현지 유통 판로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송병배기자



논산소방서, 119수호천사 양성 논산소방서(서장 류봉희)는 생명 존중 실천을 위한 심폐소생술 강사 양성과 119수호천사 활동 활성화를 위한 "생명지킴이 119수호천사 양성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안전처의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5개년 계획"에 따른 것



청양경찰서, 소방서 방문 4대악 및 음주운전 근절 교육 청양경찰서(서장 조기연)에서는 지난 8월 31 일 청양소방서를 방문하여 4대악 및 음주운전 근절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경찰은 교육에 참석한 소방관 80여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 홍보전단지를 나눠주며 4대악 근절 동참을 부탁하면서,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공주소방서, 전국 소방전술경연대회 준비에 구슬땀 7월 16일 천안시에 위치한 충청소방학교에서 충남도 내 15개 소방서 1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2015년 충청남도 소방전술경연대회에서 공주소방서가 1위를 차지함에 따라 10월 15일과 16일 이틀간 충청소방학교에서 개최되는 전국 소방 전술경연대회' 준비에 출전선수들 모두 흔연에 전력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 한 청양, '추석명절 소방안전대책 돌입' 청양소방서(서장 이광성)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9일까지 군민과, 고향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추석명절 대비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천안서북소방서, '등산목 안전지킴이' 운영 천안서북소방서(서장 방상천)는 기울절 지속적인 산행인구 증가함에 따라 성가산 등산로 3개소에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천안동남경찰서 제5기 시민경찰학교 입교식 개최 지난 1일 5층 대회의실에서 시민경찰학교 입교생 32명과 관계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5기 시민경찰학교 입교식을 개최했다.

당진 합덕읍 원룸단지, 청소년 우범지역 전락 우려

인근 농작물 피해 발생 우려해 지역농민들이 가로등을 소동

당진시 합덕읍에 신축된 원룸단지가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전락되고 있어 깊은 우려와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합덕읍 원룸단지의 건물 신축 후 주민 편의를 위해 건물주변에 가로등을 설치했으나 인근이 대부분 밭이라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지역 농민들이 소동하면서 1층 주차장이나 후미진 곳이 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 기타 탈선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으나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특히 일부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원룸단지 인근에서 공공연하게 집단흡연 등 탈선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나 적절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주민 K씨에 따르면 "학생들이 교복을 입은 채로 원룸 주차장으로 몰려와서 담배를 피우고 술병도 아무데나 버리지만 지도·단속에 나서야 될 관계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데 주민들이 무슨 수로 학생들의 흡연을 막겠느냐"며 "체계적

인지도·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은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학생 흡연에 관한 제보가 학교로 들어오지만 그에 관한 제재와 처벌 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학부모 호출 및 농사활동과 청소 등의 정제를 내리고는 있지만 학생들이 전혀 무서워하거나 겁내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합덕읍사무소 관계자는 "얼마 전 원룸단지 인근에 가로등을 소

등한다는 민원이 발생해 등을 켜도록 조치를 취했으나 농작물 주인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며 "농작물도 중요하지만 주민안전과 사고 예방에 비중을 두고 순찰과 계도를 하고 있으나 잘 시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관계 기관 조치 대안이 없어 거의 방치수준으로 청소년들의 탈선을 지켜보고만 있는 현실이지만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당진=최근수기자

대덕구, 범죄예방 도시

환경디자인 공모사업 선정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대전시 주관 '2015년도 범죄 예방 도시 환경 디자인(CETED)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돼 3억원을 지원 받는다.

이번 공모사업은 생활주변 범죄 발생률 증가세에 따른 시민의 안전생활 요구를 민족시키고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3월 대상지역을 범금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실시했다.

구는 대화 10길 5 일원이 열악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시설물, 좁고 어두운 골목길로 인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을 위한 환경·물리적 측면의 시설물 등을 정비·개선하여 범죄예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공모사업에 응모했다.

김태선기자



'빈병 보증금' 소주 100원·맥주 130원으로 오른다

재활용법 시행령 등 개정 추진···제조원가·물가 반영해 현실화

정부가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늘리기 위해 빈용기 보증금을 인상한다. 이에 따라 소주병은 보증금이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오른다.

환경부는 빈용기 보증금 현실화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를 밝혔다.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늘리기 위해 1985년 시작한 빈용기 보증금제도는 1994년 이후 금액이 동결됐다. 그에 반해 지난 20여년 간 소주 판매가격은 1994년 556원에서 2015년 1069원으로 약 2배 올랐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고된 소주와 맥주 총 49억 4000병 중 17억 8000병이 일반 가정에서 소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소비자가 직접 반환한 것은 4억 3000병(24.2%)에 불과해 소비자가 포기한 보증금은 570억원에 달했다.

이번 보증금 인상안은 신병 제조원가 대비 폭익 77%, 페인드 97%, 그간의 물가상승,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

인상안은 전진국 사례(신병 제조원가 대비 폭익 77%, 페인드 97%), 그간의 물가상승,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소비자가 빈용기를 쉽게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대책도 마련했다.

주류회사가 소소매점에 지급하는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현실화(소주 16원, 맥주 19원 → 33원 단일화·인상)하고 빈용기 회수에도 소소매점이 적극 동참하도록 지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소소매점의 보증금 지급 거부에 대해 소비자가 신고하는 경우 소소매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오는 11월부터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콜센터를 시범운영하고 내년

1월 21일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제품의 보증금 환불 및 재사용 표시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진열대 가격표시에 보증금을 별도로 표기하거나 무인회수기 설치 시범사업 등도 관련 업계와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빈용기 재사용률이 현재 85%에서 선진국 수준인 95%까지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취급수수료 인상안에 따라 주류제조사 부담액은 125억원이 증가하는 반면 재사용률 증가에 따른 신병 투입 감소(약 5억원)로 인한 편익은 451억원으로 예상된다.

경제적인 편의 외에도 온실가스 배출량 20만톤(소나무 3300만 그루 연간흡수량), 에너지 소비량 26 억㎾(연간 1.5만명 전력소비량) 감소 등 환경적 편익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입법에 고안은 국민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김태선기자

"공공아이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현재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인증서를 확인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공공아이핀의 활용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공공아이핀의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공공아이핀 서비스 운영지침'을 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법령상 근거가 있거나 업무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공공아이핀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민원처리 등 법령

에 따라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 성인과 같은 연령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 중복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른 공공서비스와 연계하기 위해 사용자 식별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공공아이핀 이용자 보호원칙도 강화된다.

부정 사용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핀의 사용 정지 등 필요한 조치가 즉시 취해지며 이용자가 자신의 공공아이핀을 도용이나 부정 사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접 공공아이핀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기 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아이핀의 유효기간을 1년(웹에서 기입) 또는 3년(주민센터에서 기입)으로 정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인증을 하도록 하는 절차도 이번 지침에 포함됐다.

심의섭 행자부 창조경제부조직실장은 "이번 지침 제정이 개인정보 보호와 더불어 본인확인이 남용되고 있는 인터넷 이용문화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금산소방서, 소방장비 조작능력 및 운용실태 점검

소방장비 100%가동과 긴급출동태세 확립 의지 다져

금산소방서(서장 조영학)는 지난 1일 국민안전체 주관시·도 소방장비 조작능력 및 운용실태 점검을 대비하고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충남소방본부와 함께 소방장비 및 소방차량 조작 능력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확인점검은 국민안전체 주관 시·도 소방장비 조작능력 및

운용실태 점검을 대비하여 진행하였고,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평가 메뉴얼에 따른 소방차량별 조작능력 평가 ▲소방차량별 일일·주간 점검 확행 여부 ▲소방차량별 장비 적재 기준에 따른 장비적재 상태 확인 등을 중점 실시하였다.

유영신 예산장비팀장은 "평소 소방장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어떠한 재난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안전의식을 생활화하여 소방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장비는 '소방의 3요소'라 불리는 만큼 각

종 구조, 구급, 화재진압활동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이번 소방장비 확인점검을 실시한 배경을 전했다.

유영신 예산장비팀장은 "평소 소방장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어떠한 재난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안전의식을 생활화하여 소방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남규기자

청양군, 말벌·예초기 안전사고 주의로 안전한 벌초 당부

청양군이 추석을 앞둔 요즘 벌초 작업이 늘자 예초기나 말벌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요령을 당부하고 나섰다.

사전준비 없이 작업을 하다 벌쏘임, 뱀 물림 등의 피해를 입거나 예초기, 낫 등 도구를 잘못 사용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고예방 요령과 간단한 처치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예

초기 사용요령 등을 숙지하지 않고 벌초를 위해 1년에 한두 번 도구를 접하는 도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이 더욱 요구된다.

우선 풀과 나무가 무성한 선산에 들어가 벌초작업을 할 때에는 혼자 아닌 여러 명이 동행해 유사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간단한 구급약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업 전에 벌집이 있는지 살펴

봐야 하며, 벌에 쏘였을 때는 벌침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가능하면 얼음찜질로 농액이 흡수되는 것을 줄여줘야 한다.

뱀에 물렸을 때는 흉분하거나 겉거나 뛰면 독이 더 빨리 퍼지므로 환자를 눕히고 움직이지 않도록 하며, 물린 부위는 심장보다 아래쪽에 뛰어 하고, 팔에 물린 경우 반지와 시계를 빼는 게 좋다.

청양=정상범기자

청렴알리미 서비스는 반부패·청렴 위해요소 및 자칫 실수할 수 있는 부패 사례를 사전 주의, 당부 및 교육을 통해 비위행위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부패사례 주간지 '원포인트 청렴스터디', 만화로 이해하는 '알려라 청렴카툰', 부패 취약시기에 발령하는 '청렴주의보', 공직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청렴 문안을 직원에게 전파하는 '핸드폰 청렴문자 서비스' 등이 있다.

대전보훈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청렴알리미 서비스를 계기로 전직원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해 보훈기록에 신뢰받는 서비스 제공과 함께 깨끗한 보훈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찾아가는 119 소방안전체험 실시

서산소방서, 서산 문화회관 일원에서 진행

서산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찾아가는 어린이 119소방안전교육 체험을 9월 4일, 5일 이틀간 걸쳐 서산 문화회관 일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체험은 안전체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현장안전 체험교육」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확산의 일환으로 ▲소방차 전시 ▲119구조대 장비 전시 및

대전보훈청 '청렴알리미 서비스' 시행



대전보훈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청렴알리미 서비스를 계기로 전직원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해 보훈기록에 신뢰받는 서비스 제공과 함께 깨끗한 보훈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취업준비생 54% “어학시험 가장 돈 아까워”

<잡코리아> 설문조사 결과…한 달 평균 비용 22만 8천여 원 지출

취업준비생이 취업을 준비하며 가장 아까워하는 비용은 ‘어학능력시험 비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취업준비생 2832명을 대상으로 취업준비할 때 아까운 비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진 사실이다.

취업준비생의 54.1%는 ‘나날이 오르는 어학능력시험 비용’이 가장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복수응답). ▲면접 보느라 드는 교통비(35.4%) ▲인적성검사 등

어쩔 수 없이 사는 책들(31.9%) ▲음료 값 등 취업스터디 하며 드는 비용(31.2%) ▲취업준비 사진 찍는 비용(24.4%) ▲졸업 유예하거나 1과목 수강하는데 내는 비싼 등록금의 일부(18.1%)가 그 뒤를 이었다.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 일까? 복수응답? 취준생의 57.7%가 ‘지갑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이어 ▲너무 비싸서(57.7%) ▲크게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32.2%) ▲남들 다 하니까(29.5%)라는 응

답이 뒤따랐다.

취업준비를 위해 취준생들은 한 달 평균 22만 8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가장 적은 금액은 2천 원이었으며, 가장 많은 금액은 3백만 원이었다.

취업준비를 하는 데 쓰는 돈은 대부분 아르바이트(49.4%)로 충당하고 있었다. 부모님 및 친지 등으로부터 받은 용돈을 쓴다는 취준생도 44.4%로 많았다.

이정복기자

세종시교육청, 수능시험 모의평가 실시

한솔고 등 관내 6개 고교에서 1150여 명 응시



논산여상, 특성화고 학생 사장되기 창업대회 우수학교 선정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 박화연)는 한국시민자원봉사회에서 주관한 제12회 특성화고교생 사장되기 창업대회(Be the CEOs)에서 우수학교로 선정되어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또한 참가 학생이 통상지원부 장관상(2명)과 은상(1명)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서산대진초, 화재·행동요령만 알면 안전해요!
서산대진초등학교(교장 장우현)가 운동장에서 대선 19인전센터와 학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행동해야 할 요령을 알고 직접 체험하며 안전한 대피경로를 연습하는 훈련이었다.



대전보훈청 ‘광복70주년 분단 70년 기념 – 분단극복캠페인’ 실시
 지난달 27일 대전예술의전당아트홀에서 광복70주년 분단70년 기념으로 ‘위대한 여성, 새로운 도약 – 대한민국평화의 빛을 비추다’ 문화예술공연을 통해 ‘분단극복캠페인’을 실시했다.



설화중, 배방농협과 자매결연 협약식

설화중학교(교장 김은영)는 지난 1일, 학교 다목적실에서 배방농협협동조합과 상생·협력의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2015학년도 1교 1사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성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조합의 사회적 역할, 지역공동체로서의 이

다문화가정 학생 위한 맞춤형 상담활동 지원

충남교육청, 공감과 소통의 다문화교육 상담지원 봉사단 활동 전개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9월부터 다문화교육 상담지원봉사단을 활용한 맞춤형 상담지원 활동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7월에 위촉된 상담지원봉사자 16명이 중심이 되어 생활지도, 기초학력부진, 진로진학상담, 학교부적응, 자녀교육, 심리상담, 건강상담 등의 영역에서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상담지원 활동은 노내 각급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학생, 학부모, 교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문제점을 전화, 이메일, 충남다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상담자와 매칭을 통해 이루어진다.

내포=이지웅기자

대전학생교육문화원, 학교도서관 연계 초등 독서교육지원 위해 ‘찾아가는 독서교실 운영학교’ 모집

대전학생교육문화원(원장 전우창)은 9월 9일부터 10일까지 학교도서관 연계 초등 독서교육지원을 위한 하반기 찾아가는 독서교실 운영학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초등학교 6교이며, 운영 학교로 선정되면 3학년 전체학급을 대상으로 학급별 2회씩 독서교육 전문 강사와 운영용품 일체를 지원한다.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의 2015 찾아가는 독서교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 학생 교육문화원 홈페이지(www.djsec.or.kr) 또는 전화(042-229-

1435) 문의를 통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찾아가는 독서교실 운영 학교는 흥미로운 책 읽기와 토론, 독서 인터뷰, 역할극,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독서 체험활동을 진행하여 상반기에도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차복순 문현정보과장은 “하반기 독서교실은 운영 장소를 학교도서관으로 옮겨 학생들이 프로그램 이후 자연스럽게 자율 독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환기자

진산중, 학업성취도평가 우수한 성적 거둬

학업성취도평가 3년 연속 기초미달 Zero 달성



대둔산 지역 고즈넉한 진산골에 55명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며 꿈을 개척하는 진산중학교(교장 이정순)는 금년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매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전국의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6월 29일에 실시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최근 발표되었는데, 이 결과 평가가 이루어진 국·영·수 과목에서 기초미달 학생이 한 명도 없어 3년간 연속 기초미달 학생 Zero화를 이루는 쾌거를 이루었

다.

진산중학교는 ‘즐겁게 배우며 꿈을 키우는 행복한 배움터’란 교육 목표를 가지고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가 혼연일체가 되어 각자만 일찬 학교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기초미달 학생 Zero화는 학교장의 아래 1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1:1 맞춤형 기초학습 보정지도 프로그램 ‘다꿈 디딤돌반’ 운영과 아침 30분간 시제동행 독서활동, 국·영·수 교과 책임지도제 등을 전 교직원이 참여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전교생이 함께하는 원드오케스트라 운영은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감성교육의 결과로 보여진다.

이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3년간 Zero화 달성을 통하여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자신감과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으며, 학부모들은 공교육에 대한 많은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었다.

이정순 교장은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실력과 예술적 감성을 갖춘 직지만 일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학부모님들에게는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금산=김남규기자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은자)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난 2일, 오후 3시부터 종합의사실에서 청양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추가 선정·배치와 2016학년도 진급생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심의 안건으로 2015학년도 제2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가졌다.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청양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 의뢰가 들어온 학생의 진단·평가 결과를 토대로 선정하고 회망학교에 배치하도록 결정하였으며, 9명의 추가 언어치료대상자에 대해서도 심의·선정하였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청양의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보다 나은 특수교육환경 조성과 관련 서비스 지원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정상범기자

충남 남부평생학습관, 중학교 진로독서 운영



충남 남부평생학습관(관장 송용재)은 9월부터 논산·계룡지역 중학교 6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꿈찾기 진로독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꿈찾기 진로독서’는 관내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책 읽기를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직업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의 독서프로그램이 즐거워지도록 주제를 바탕으로 토론이나 생각해보기였



다면 진로독서는 책 속 등장인물이 진로를 찾아가는 방법, 등장 인물의 직업 등을 살펴보고 직업의 특성, 준비과정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꿈찾기 진로독서 프로그램은 연무중학교를 시작으로 웬별여중, 논산여중, 용남중, 광석중, 건양중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남부평생학습관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독서진흥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대수기자

•동정•••

정례브리핑 개최



이준희 세종시장= 3일 오전 10시에 정읍 실에서 정례브리핑 개최.

광천읍이동복지관 행사



김석환 홍성군수= 3일 오전 9시 광천문예회관에서 열리는 광천읍이동복지관 행사를 참석.

황새 자연 방사 행사



황선봉 예산군수= 3일 오후 3시 예산황새공원에서 열리는 황새 자연 방사 행사를 참석.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움직임 '가속화'

충남도, 천만인 서명운동 마무리… 4개 분야 49개 개선 과제 추진 비판

충남도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운동'을 마무리하고, 서명부를 견의문과 함께 2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도를 비롯한 전국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 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난 4월부터 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5개월 가량 진행된 서명운동에는 모두 962만 9966명이 참여했으며, 각 시·도는 이날부터 여야 정당과 각 정부 부처에 서명부를 견의문과 함께 각각 전달 중이다.

도의 서명운동에는 당초 목표(79만 4800명)를 4만 6555명 초과한 84만 1355명이 참여했으며, 도는 이날 이 서명부를 농림축산식

품부에 전달했다.

서명부와 함께 서명인 및 지역 균형발전협의체 명의로 전달한 견의문은 비수도권 지역의 불합리한 중복규제 완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진정한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견의문을 통해 "우리나라 현실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국가의 의무를 천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국부총리 주재 1차 규제개혁집결회의 겸 국가정책 조정회의(2015년 7월 30일)에서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규제 협약 4개 분야 49개 개선 과제를

발표하는 등 사실상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를 감안하지 않은 전국 공통의 일률적인 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 집중과 과밀을 가속화 할 뿐"이라고 지적한 뒤 "정부는 수

도권과 과밀 해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또 ▲사실상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포함된 공장 및 산업단지 규제개선 추진에 앞서 세제와 금융지원 등을 비롯한 획기적인 지역발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수도권 복귀기업 재정 지원 협용 등 규제 기요틴 추가 논의과제를 규제완화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하며 ▲산·농지, 환경, 군사 등의 분야에서 불합리한 중복규제로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앞으로 지역균형발전 협의체와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가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객관적 대응 논리 마련을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전략' 공동연구를 마련하고, 이 연구 성과물을 바탕으로 도출한 국가균형발전 과제들이 정부 정책으로 채택돼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결집해 나아갈 계획이다.

내포=이지웅기자



세종시 중국서 관광자원 홍보

중국산동국제여유교역회 참가… 최우수 부스상 수상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준희)가 중국 산동성 제남시에서 열린 중국산동국제여유교역회(8.28~30)에 참가하여 세종시 관광을 홍보했다.

이번 교역회는 산동성 여유국과 제남시 인민정부가 주최하는 행사로 매년 30여 개 국가와 도시, 중국의 20여 개 성과 시가 참가한다.

중국 산동성은 세종시와 2013년 관광우호교류협정을 맺은 도시이다.

세종시는 교역회에 단독부스로 참가해 정부세종청사와 국립세종도서관, 대통령기록관 등 창의적인 문화건축물을 집중 홍보한 결과, 최

우수 부스상(最佳展台獎)을 수상했다.

또한 세종시는 산동성 여유국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양 도시의 관광교류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확대방안을 논의했으며, 중국내 중견급 여행사를 방문해 세종 관광 상품 개발을 논의하는 등 실질적인 홍보마케팅을 진행했다.

신동학 문화체육관광과장은 "이번 교역회 참가 및 관광설명회를 계기로 중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정환기자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서명운동 열기

10일 만에 5천명 돌파… 천안·용인·인성 등과 공조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준희)가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건설을 위해 시민들의 힘을 모으고 있다.

특히 세종시가 서명운동을 실시한 지 열흘 만에 5천명을 돌파하는 등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세종시는 고속도로 노선 통과지자체인 천안·인성·용인시와

과 여러분의 뜻을 모아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조기건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께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기존 고속도로의 훌륭한 혜택과 세종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됐으며,

2011년 국토교통부 도로정비기본계획 우선순위 6위에 선정되는 등 타당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세종=김정환기자

동정

반찬가게&공방 개소식



복기왕 아산시장=3일 오후 3시 풀담 협동조합 반찬가게&공방 개소식에 참석.

타이머 콕 보급행사



김홍장 당진시장=3일 오전 8시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부서장 시정업무 자체교류에 참석, 오전 10시 당진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새마을지도자 수련회에 참석, 오전 11시 30분 여성의전당에서 열리는 가스안전 '타이머 콕 보급행사'에 참석.

타이머 콕 보급행사



이재광 당진시의장=3일 오전 11시 30분 여성의전당에서 열리는 가스 안전 '타이머 콕' 보급행사에 참석.

의원간담회



한상기 태안군수=3일 오전 9시 군의회 의원사무실에서 열리는 군의회 의원간담회에 참석.

보고회



이석화 청양군수=3일 오후 1시 청양읍 백세건강공원에서 제16회 청양고추·구기자 축제 행사장 준비 상황 현장 보고회를 주재

황새 자연방사 행사



김은자 청양교육장=3일 오후 3시 황새 자연방사 행사에 참석.



올해 충남여성자치대학 수료식 열려

청양군은 2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이석화 군수 및 충남여성자치대학 참여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료식을 개최했다.

충남여성자치대학은 21세기 여성 시대에 부응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평생교육 유효성현을 통한 여성 권익증진의 조선을 디자인 위해 마련돼 지난 5월 20일 첫 강좌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주 1회 총 10회에 걸쳐 청양교육으로 진행됐다.

주요 강좌 내용으로는 ▲여성의 스피치 기술 ▲내 몸을 살리는 먹거리 상식 ▲미래의 힘 ▲여성의 힘 등으로 여성의 성인 지적 자치역량 강화 및 사회변화 대응 능력 향상을 통해 사회변동의 핵심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는 강의로 편성됐다.

수료식에 참석한 이석화 군수는 "그동안 더운 날씨에도 열정을 갖고 참여해주신 수강생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교육을 통해 여성들의 잠재력을 일깨워 자기계발 및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활동 전개

당진시, 체납징수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공매교육 실시

당진시가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맞춤형 체납관리 징수대책을 수립해 지방세 체납액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시가 올해 징수한 체납액은 53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3억 원) 23%가 늘어났으나 시는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을 일소해 시 재정의 안정화를 이루고자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당진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김재훈 과장을 강사로 초빙 ▲공매 가능 부동산 선별 ▲실익여부 권리분석 및 처리절차 유의사항 등에 관한 공매교육을 통한 전문성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액 0104장기 상습 체납자에 대해 압류부동산 공매

는 물론 체납자동차번호판영지, 각

종 예금·급여입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이게 된다.

또한 그동안 관내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현장 독려와 체납처분활동을 외로까지 확대해 고액 지방세 체납자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대상자를 가호호방문 체납액 독려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시에서는 체납자들의 체납

유형을 분석해 생계형 체납자를 제외한 상습·반복적 고액체납자에게는 공매처분을 실시할 것을 고지하고, 공매가 진행되면 각종 수수료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공매처분 진행 전 자진납부를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당진=최근수 기자

태안군 자연산 가을 대하 첫 출어·미식가 입맛 유혹

대하잡이 시작, 풍년 예감… 41척의 어선 총 1310kg 잡아



전국을 들썩이게 하는 태안군의 가을 대회 대회 먹거리 대하가 9월을 맞아 다시 돌아왔다.

태안군에서는 지난주부터 안면

읍백사장항을 중심으로 자연산 대하가 잡히기 시작했으며, 지난 1일 대하 첫 위판에 들어간 백사장항에서는 이날 하루 41척의 어선이 대

하 집이에 나서 총 1310kg의 대하를 잡아올리며 풍년을 예감케 했다.

백사장항 수협 위원장에서는 1kg 당 1만 5000원에서 1만 6000원 선에 첫 위판과 형성됐으며, 어획량이 많았던 지난해 첫 위판과 비교했을 때 가격은 약간 낮아지고 위판량은 30% 정도 늘어난 수치다.

아직은 대하의 크기가 크지 않은 편이지만 오는 10월까지가 수확의 최적기인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더 크고 많은 양의 대하가 잡힐 것으로 보이며, 이에 백사장항 주변의 상가 및 펜션도 별써부터 손님맞이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백사장항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 모 씨는 "태안의 명물인 꽃게와 대하가 나오는 9월부터는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여름 뜻지않은 인파를 볼 수 있다"며 "전국에서 가장 맛있는 태안반도 대하

가집하기 시작한 만큼 많은 분들이 태안군을 방문해 맛있는 여행을 즐겨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단백질과 무기질이 풍부한 대하는 육질이 부드럽고 쫄깃해 기울 최고의 별미로 손꼽히며 주로 날로 깨먹거나 소금구이, 뒤김, 짬 등으로 요리해 먹는다.

특히, 은박지를 깬 석쇠에 소금을 깔고 대하를 올려 구워먹는 소금구이는 고소하고 담백한 맛과 쫄득한 육질이 일품으로, 매년 대하철마다 전국의 미식가들이 태안을 방문할 만큼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가을 대하는 꽃게와 함께 태안을 대표하는 명물 먹거리로, 매년 가을이면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려와 향·포구가 성황을 이룬다"며 "올해도 많은 분들이 태안을 방문해 대하의 참맛을 느껴보시기 바라며, 군에서도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교통 및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청양군은 2015년 7월 1일 기준 238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열람 기간을 운영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5년 1

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이 발생한 개별 토지에 대한 m²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 소재

지읍·면사무소 및 군청 민원봉사실에서 할 수 있으며, 충남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해 적정 가격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민원봉사실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서식을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0월 30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청양=정상범기자

탕정면 사랑의 배추 심기 행사 추진

아산시 탕정면 새마을부녀회(회장 송현순)와 삼성디스플레이 봉사단은 지난 1일 동산리에 소재한 약 3천여m²의 농지에 연말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김장용 배추 1만포기를 심고 재배에 들어갔다. 이날 40여명의 봉사단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쁜 아침부터 땅 갈기를 시작해서, 풀이 나지 않도록 비닐을 덮고, 모종을 옮겨 와심하는 구슬땀을 흘렸다.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은 앞으로 도 배추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물도 주고, 병해충에 걸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며, 11월 초에 수확해 연말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김장을 담아 전달할 계획이다.

송현순 새마을부녀회장은 "연말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맛있는 김장을 해주는 모습을 상상하며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했다"며, "배추가 잘 자라서, 어려운 이웃이 겨울을 나는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성껏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평범함에서 특별함을 찾는다

특색 있는 관광지 조성을 위해 칠갑산 답사나서

이석화 청양군수가 특색 있는 관광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직접 빌로 뛰며 사업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이 군수는 지난 달 31일 삼우성 청양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 의원, 주민 등 40여명과 함께 칠갑산 답사에 나섰다.

이날 일행들은 칠갑산의 구석구석을 세밀하게 살피며 자연지형 등에 얹혀 있는 옛이야기, 전설 등 관광객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소재를 찾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군은 특히 이번 답사를 통해 칠갑산의 거북바위 전설을 재확인하

고 현재 조성 중인 장곡지구 테마학습장과 연계해 황금복거북이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특색 있는 명소로 가꿔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칠갑산 거북바위에는 백제시대 한 선비가 거북이 일을 나눠 받는 꿈을꾼 후 대대손손 장수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또한 군은 칠갑산의 다양한 매력 요소를 제공하기 위해 천장호 산책로변에 시비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작물을 공모해 5개의 우수 작품을 선정했다.

이장은 "우리가 무심하게 지나쳤던 칠갑산에 이런 전설이 있었는지 오늘 새롭게 알게 됐다"면서 "이러한 자원을 잘 정비해 더욱 불거리가 많은 관광지로 만들면 좋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청양만이 지난 숨에 있는 자원을 빌려 특색 있는 관광지를 조성함으로써 청양 관광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정상범기자



이장은 "우리가 무심하게 지나쳤던 칠갑산에 이런 전설이 있었는지 오늘 새롭게 알게 됐다"면서 "이러한 자원을 잘 정비해 더욱 불거리가 많은 관광지로 만들면 좋겠다"고 밝혔다.

청양=정상범기자

우리/동네



태안 꽃차 활용 체험관 광 상품화 시동

'꽃차 소믈리에 아카데미반' 수료식·전문가 42명 배출

태안군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1일 센터 대강당에서 '꽃차 소믈리에 아카데미반' 개인작품 전시회 및 수료식을 열고 42명의 꽃차 전문가를 배출했다.

군 농촌체험 관광교육의 일환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한 '꽃차 소믈리에 아카데미반'은 꽃을 이용해 다양한 차를 만드는 꽃차 소믈리에 양성을 위한 것으로 체험관 광연회 회원과 군 귀농귀촌 인 등이 참여해 지난 3월부터 9월 1일까지 총 13회 82시간에 걸쳐 실시됐다.

이날 수료식에서 수강생들은 자신들이 직접 만든 꽃차 10종에 대한 개인 작품 전시회를 갖고 서로의 꽃차를 시음해보며 그동안의 성과를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수료생 전원은 꽃차 소믈리에 1급 자격증을 취득 자격을 갖춰 내달 실시되는 자격증 시험에 전원 응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꽃차 전문가로서 태안 지역 꽃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관광객들에게 알리게 된다.

군은 이번 꽃차 소믈리에 교육을 통해 농촌체험 프로그램에 지역의 부존자원 활용률을 높이고 농촌체험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높여 군체험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일거리 창출을 통한 농촌사회 활성화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꽃차는 태안군의 아름다운 자연을 활용한 새로운 체험관광 상품으로 각광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군의 이미지 제고와 농업인 소득창출을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태안=김정한기자

추석 물가안정 종합대책 추진

당진시, 서민 물가안정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당진시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서민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지난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5일간 추진한다.

시는 이번 특별대책기간 동안 사과, 조기, 쇠고기 등 20개 상수품과 목욕료, 이용료 등 10개 개인서비스요금을 중점 관리 대상품목으로 선정하고 ▲요금과 디자인상 ▲담합에 의한 부당요금 ▲계량기 위반행위 ▲섞어팔기 ▲가격표시제 또는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등을 중점지도하고, 물가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 매주 지역 물가정보를 인터넷 물가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등 추석맞이 물가안정 종합대책에 총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체불임금 지급

우/리/동/네

계룡시 “반부패·청렴의 달” 운영

9월 한 달… 엄중한 감찰활동·캠페인 실시

계룡시(시장 최홍목)가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두 팔을 걷었다.

시는 추석 명절이 포함된 9월을 “반부패·청렴의 달”로 정하고 전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홍보·감찰활동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직원대상 교육과 함께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청렴서약서 작성 및 청렴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공직자 반부패·청렴 실현’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선물 안 주고 인 받기 등 공직사회의 부패 행위를 사전 차단하면서 소외된 이웃과 함께 훈훈하고 정이 넘치는 풍성한 명절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이울러,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특별 감찰을 강력히 실시하는 등 추석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및 품위손상 행위를 적극 예방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반부패·청렴의 달 운영을 통해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부패 행위를 단절하고, 공직자 스스로 청렴 실천 의식을 강화하여 청렴한 계룡시의 이미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마을 숨은자원찾기 행사

서천군 한산면·폐지·고철·병·캔 등 수거

서천군 한산면은 2일 한산면사무소 광장에서 한산면 새마을 남녀지도자협의회(회장 박신규, 부녀회장 유지애), 한산면 이장단(회장 박인순) 및 주민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마을 숨은 자원찾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마을별로 쌓여 있는 폐지, 고철, 병, 캔 등 재활용품과 농경지에 방치된 폐비닐, 농약병, 비료포대 등을 수거했으며 마을별로 도로변 정비 등 대청소를 함께 실시해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깨끗한 한산면 만들기에 최선을 다했다.

최항우 한산면장은 “마을별로 도로변 정비와 함께 숨은 자원찾기 행사를 통해 한산을 찾는 관광객과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을 귀향객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赖以生存한 호나경을 제공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깨끗한 한산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매 분기마다 열리던 한산면 숨은자원찾기 행사는 메르스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재설시 되었으며 노박래 서천군수가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천안시 ‘행복공감 제안공모’ 접수

이달말까지 접수 후 우수제안최대 상금300만원 시상

천안시는 민선6기 출범 2년차를 맞아 시민들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행복공감 제안공모’를 접수한다.

이번 제안공모는 ‘내가 만드는 천안시’로 정부3.0 발전방향과 원도심 활성화, 천안·아산 상생협력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다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공모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의 공모제안(www.epeople.go.kr) 또는 천안시청 홈페이지(www.theonan.go.kr)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또 시청·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제안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팩스(041-521-2159), 우편(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정책기획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실무 부서 심사단과 천안시제안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으로 채택될 경우 시장 표창과 함께 최고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천안=김정환기자

부여군 경로장애인과의 실시

노인 인권상황 모니터링 결과보고·분과위원회 의견수렴

부여군(군수 이용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지난 1일 지역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경로장애 분과 정기 회의를 진행했다.

실무분과 활동 중 하니인 경로장애 분과는 지역의 경로·장애인에 관한 정책제안 및 논의를 진행하며, 활동기관으로는 장애인 3개 단체(지체·시각·농어인협회), 장애인종합복지관, 국립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관내 요양시설 등이 활발한 참여를 하고 있다.

이번 회의 주제는 ‘사회보장급여법(2015.7.1) 시행에 따른 주요 변화사항에 따른 논의’와 ‘분과 활성화 방안을 위한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고 노인인권 증진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2015 충남형 노인인권 지킴이단(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참여한 관내 요양시설 어르신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보고와 분과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부여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원활한 복지사각제를 벗겨 및 지원발굴·지원연계 구축을 위한 조례개정과 읍면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역의 협력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해소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정

9월중 직원모임



오시덕 공주시장=3일 오후 4시 공주 문예회관에서 열리는 9월중 직원 모임 참석.

제5회 연안발전 포럼



김동일 보령시장=3일 오전 10시 웨스토피아에서 제5회 연안발전 포럼, 오후 2시 세 영부회에서 제14회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오후 3시 상황실에서 대천-죽정동간 도로개설공사 최종 용역보고, 오후 5시 웅천문화공원에서 제12회 한국석조 각예술인협회 충남지회전, 오후 7시 30분 문예회관에서 바다&박지현 공연 참석.

상홍리 기축경매시장 준공식



이원섭 서산시장=3일 오전 10시 서산 르셀웨딩컨벤션에서 개최되는 지방재정분야 학동워크숍에 참석, 오전 11시 서산시 음악원 상홍리 기축경매시장 준공식에 참석, 오후 2시 30분 서산석립사회복지관에서 열리는 성인문해교육 예비중학교장 개강식에 참석, 오후 3시에 서산동부시장 씽지공원에서 열리는 음식물안전기기 거리 캠페인 참석.

금신인삼축제 주행사장 점검



박동철 금산군수=3일 오후 2시 제35회 금신인삼축제 주행사장에 대한 준비상황 점검.

유·초·중·고교(원)장회의



조병택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3일 오전 10시 청내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학기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장회의 참석.

서산시기업유치 목표초과달성

서산시가 올해 기업유치 목표를 일찌감치 초과 달성했다.

2월 시에 따르면 이달 현재 21개 기업을 유치해 올해 목표치인 20개를 넘어섰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국내·외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것은 적극적인 기업유치 시책과 기업입지 여건 개선 노력 등 시의 발품행정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는 기업유치 전담 조직을 구성해 활발한 홍보 활동과 함께 기업 정보를 수집하고 입주 의사가 있는 기업을 발굴해 기업입주 여건의 장점을 설명하고 산업단지 정보를 제공했다.

공단 진입로 확충 사업과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건립 등 기업입지 여건 개선을 위한 시의 노력도 기업유치 목표 초과달성을 이유로起到了作用。

전성배 성장전략과장은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자동차 중심의 연관 기업과 석유화학 신소재 제품 생산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며 “평당 50만평대의 저렴한 산업용지와 수도권과의 원활한 교통망 구축, 우량기업 투자촉진보조금 지원확대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6월 서산오토밸리에 위치한 현대아워 앤진공장의 본격적인 가동과 현대파워텍, 현대다이모스, 동화오토와 서산바이오, 웨빙·연구특구 조성 등 지동차산업 집적화로 관련 업체의 입주가 한층 기속화될 전망이다.

서산=김정한기자

공주시, 제61회 백제문화제 현장점검 나서

도출된 개선사항들 즉시 개선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제61회 백제문화제를 안전하고 행복한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개막을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축제장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예년보다 한 달 앞서 종합 점검을 실시, 사소한 문제점이라도 조기에 발견해 안전한 축제 현장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오시덕 공주시장을 비롯한 국·단장, 담당관, 과장 등 30여 명의 간부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진병득 문화관광과장의 종합보고와 각 부서 담당과장들의 현장 설명으로 진행된 이날 점검에서 오시덕 시장은 행사장 배치 현황과 주부대, 주제관, 실경공연, 백제마을, 미르섬 조명, 알밤축제장 등 주요 행



또한 웅진 골 마트, 농·특산물 판매장 등을 비롯해 행사장 진·출입로와 주자장 현황, 금강 부교와 미르섬 꽃 식재 및 산책로 설치 현황 등을 세세히 점검하고 예상되는 문제점 등 다양한 시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환경을 맞이한 제61회 백제문화제

제사를 경축하는 무대이자 공산성과 무령왕릉을 포함한 송산리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뜻 깊고 완벽한 축제로 백제문화제를 개최하기 위해 꼼꼼히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현장점검에서 도출된 개선사항들은 즉시 개선하는 한편 축제 개막에 앞서 추가적

인 현장점검을 실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에는 금강과 공사성을 배경으로 한 실경공연 등 알찬 프로그램들을 확충하는 한편 기존 프로그램들도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 업그레이드 해 지난해 130만명을 넘어서 150만명의 관광객 유입을 목표로 1200억원의 경제적 유발효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시덕 시장은 “세계유산을 품은 도시로서 품격을 높이는 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하며,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되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쟁여 백제문화제가 세계속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주=정상범기자

보령시 농정현안협력방안 모색

농정 현안사항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 죠 김동일 보령시장과 유관기관장들이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보령시는 1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김동일 보령시장을 비롯한 김종희 대천농업협동조합장과 11명의 농·축·수협·산림조합장 등 14명 관계기관장이 모인 가운데 ‘농업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농정과,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등 농정 소관부서의 당면 현안사항 토의를 통해 지자체와 유관기관 그리고 농산어민들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기관장을 초청해 함께 고민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농정분야에서는 내년도 3농혁신 융복합사업 공모에 따른 다양한 사업이 발굴되도록 공동참여를 흥보했고, 산림분야에서는 산불 없는 녹색마을 선정을 위한 다수 마을이 주민으로 협조를 구했으며, 농업기술분야에서는 오는 10월 25일 개최 예정인 제14회 민세보령 농업 협력 대회의 많은 참여와 홍보, 수도분야에서는 계속되는 기름에 따른 물 아껴쓰기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이번 간담회는 농정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우리시 농산어촌이 더욱 융성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각 기관의 역량을 살피는 활동을 통해 농산어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보령=김태선기자

풍년기원 벼 베기 시연 행사 열어

서산시, 가뭄 딛고 여름 햇볕으로 대풍년 예감

서산시가 2일 풍년농사를 맞이하는 벼 베기 시연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이원섭 서산시장과 (사)한국쌀전업농서산시연합회 회장 이덕준 회원 및 주민 40여명이 참석해 조생종 ‘조평벼’를 수확하는 기쁨을 함께 나눴다.

이원섭 시장은 “올해는 큰 자연 재해 없고 작황도 좋아 농민들이 편리를 보람이 끌 것 같다.”며 “농산물 시장 개방 등에 따른 농업현

장의 어려움을 소홀함이 없이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2만여㏊에 벼를 재배해 10만 7420㏊의 쌀 생산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벼 여부는 시기에 맞춰 물관리 및 적기수확을 통해 등숙률 및 완전미율을 높일 수 있도록 농가 지도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서산시의 벼 재배면적은 20,010㏊로 전국 3위, 충남 1위의 벼를 재배하고 있으며 전국 쌀 생산량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서산=김정한기자

보령시 내년도 시민 체감행정 구상

시책구상보고회 개최, 449건의 신규·보완시책 보고



보령시는 시민 체감행정 수준을 높여 시민이 행복한 희망한 새보령 건설에 한단계 도약하고자 2일 시는 보고된 시책들 중에서 타당성 있고 효과가 높은 우수한 시책을 선별해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시책으로는 ▲기획감사실은 새보령 비전(2030)현안사업의 체계적 관리, 속히 입해 산업단지 조성 방안 등 13건 ▲문화공보실은 상설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보령 스포츠 파크 조성 등 11건 ▲자치 행정국은 ‘미소·친절·청결’ 만

세보령인 육성, 해양 헬스케어 산업단지 유치, 머드축제 이색 관광 자원화 사업 등 93건 ▲경제개발국은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 특성화고 전기화과 개편 지원, 한내로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령=김태선기자

금산군자원봉사센터 양현환 센터장 취임식

금산군자원봉사센터 양현환 센터장의 취임식이 박동철 군수, 기관장 및 자원봉사단체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일 다목적 군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신임 양 센터장은 취임식에서 39년간의 공직생활동안 사회복지와 자원봉사 업무를 두루 맡아 오면서 양현환은 다양한 경험을 살펴 자원봉사 활성화는 물론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양 센터장은 또 “모든 분들이 열정 속에 성원해주시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준다면, 수준 높은 봉사가 될 수 있다.”며 “수혜자들에게 큰 울림이 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산=김남규 기자

우/리/동/네

금산목재문화체험장 10일 개장

52억원 투입, 전시·체험 등 자연교육의 장 기대



나부에 대한 정보습득과 체험이 가능한 목재문화체험장이 문을 연다.

금산군은 오는 10일 낮이면 건천리 금산립문화타운에서 박동철 군수는 비롯한 내외빈, 주민,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목재문화체험장 개장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목재문화체험장은 2010년부터 6년간에 걸쳐 총 5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체험장, 전시실, 트리하우스 등의 본관 건물과 부대시설이 들어섰다.

이곳에는 1층에 유아에서 목공에 전문가까지 다양한 목공수업을 할 수 있는 초급·중급·고급 체험장이 설치됐으며, 2층에는 목재문화에 대한 상설전시장과 전국의 우수한 목공작품을 전시하는 기획전시장, 자료실, 카페테리아가 들어섰다.

또한 아외체험장인 트리하우스에는 목재아기 등 여러 가지 목재체험활동 공간을 조성, 생태숲학습관과 더불어 목공프로그램이 강화된 ‘오감만족 숲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군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산림휴양지구에 편백집 7동, 산림휴양관 1동 7실을 조성, 부족한 숲박물관을 확충했으며 산림문화타운 중앙에 관리사무소, 방문자센터, 매점도 새롭게 구성했다.

군 관계자는 “산림문화타운은 나이지연휴양림, 느티골산림욕장, 금산생태숲, 금산건강숲 등이 연계된 산림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며 “‘휴양+생태체험+산림치유’를 주제로 한 미래형 선진산림의 비전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 홈페이지(www.geumsan.go.kr)나 전화(041-753-5706)으로 문의하면 된다.

금산=김남규 기자



공주시 알밤즙기 체험행사 열려

오는 10월 12일까지 운영…32개 농가 참여

밤의 고장,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알밤이 부르의어가 계절을 맞아 도시민을 대상으로 알밤즙기 체험행사를 다음달 12일까지 실시한다.

알밤즙기 체험행사는 밤 농가의 소득증대와 일손 부족 해결은 물론 명품 공주알밤의 우수성을 알리고 도시민에게 뜻 깊은 체험활동을 통해 멋진 추억을 주기 위해 공주시가 매년 실시하는 행사로 도시민들이 직접 밤 농가를 방문해 밤 즙기 체험을 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밤 주산지인 정안, 계룡, 반포면 지역 등 32개 밤 재배농가들이 참여했으며, 체험료금은 기본 1인 1만원이며 손수 주워 온 알밤 3kg까지 무료로 가져갈 수 있다. 또한 체험 농가별로 토종닭 백숙, 밀풀물운탕, 산채나물 등 다양한 음식도 사전 예약을 통해 맛 볼 수 있다.

이번 알밤즙기 체험농가는 공주시청 홈페이지(www.gong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체험활동은 농가에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산림과 임산개발팀(041-840-84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시 산림과 임산개발팀 김기호 담당은 “알밤즙기 체험행사는 도시민에 우수한 품질의 알밤을 현지에서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가에는 일손을 덜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기족, 연인과 함께 토실토실 살찐 알밤도 즐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도 돌아보며 멋진 추억을 만들어 볼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제61회 백제문화제가 열려 이 기간에 방문하는 관광객은 알밤즙기와 다양한 백제문화를 보고, 체험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공주=정상범기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어머님은 내며느리 (SBS오전 8시30분)



회장에게 따져 묻는다. 구회장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지만 강모는 쳐다보지도 않고 나간다. 경민(이동하)은 바에서 술을 마시다 취해서 강모가 테리고 오는데...

▲별이 되어 빛나리 (KBS2오전 9시)



경민은 벨사 화장품을 루루 화장품에 팔기로 결정한다. 양회장은 인수협상팀을 꾸리라 지시하고 벨사 화장품 사장을 노리고 있는 봉주는 이때다 싶어 양회장에게 인수협상 팀장을 제안한다. 한편, 경민은 자신 몰래 주회장 병실에 드니드는 수경에게 부담스럽다며 화를내는데...

▲이브의 사랑 (MBC오전 7시50분)

강모(이재황)는 구회장(이정길)이 자신의 장인어른에게서 회사도 모자라 집까지 빼앗은 걸 알고 구

재균은 10년 전 자신과 좋아했다고 소문난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 애숙을 찾아가고, 그 여인이 미순임을 알게 된다. 윤희장은 재균을 찾아와 대영방직을 자신에게 넘길 것을 제안하고, 애숙은 미순이 10년 전 낳은 아기의 친부가 동필임을 알고 있다고 밝혀 동필을 놀라게 하는데...

케이블 명화

▲신의 한수 (OCN 오후 10시00분)

단 한번의 명승부를 위해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꾼들의 비장함에 무게를 실어 각자의 복수를 위해 끝을 향해 달려 가는 진한 드라마를 선사한다.

범죄로 변해버린 신들의 눈물과 판

목숨을 건 한 수가 시작된다!

서울 곳곳에 자리 잡은 골목길에 위치한 기원으로 진입하는 순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세계가 펼쳐진다. 프로 바둑기사 태석(정우성)은 내기바둑판에서 살수(이범수)팀의 음모에 의해 형을 잃는다. 심지어 살인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서 복역하기에 이르고, 몇 년 후 살수와의 대결을 위해 전국의 내로라하는 선수들을 모은다.

각자의 복수와 마지막 한 승부를 위해 모인 태석(정우성), 주님(안성기), 꽁수(김인관), 허목수(안길경)는 승부수를 띠고 판을 짠다. 단 한 번이라도 지면 절대 살려두지 않는 악명 높은 살수(이범수)팀을 향한 계획된 승부가 차례로 시작되고……

범죄로 인해 끌어온 내기바둑판에 서 꾼들의 명승부가 펼쳐진다.

▲다크 나이트 (채널CGV 오후 5시50분)

마침내, 최강의 적을 만나다



이 도시에 정의는 죽었다! 범죄와 부정부패를 제거하여 고담시를 지키려는 배트맨(크리스찬 베일). 그는 짐 고든 형사(케리 올드만)와 페기 넘치는 고담시 지방 검사비 렌트아론 애크하트와 함께 도시를 범죄 조직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하고자 한다.

배트맨을 죽여라! 세 명의 의기투합으로 위기에 처한 악당들이 모인 자리에 보라색 앙복을 입고 얼굴에 짙게 화장을 한 고이한 존재가 나타나 '배트맨을 죽이자'는 사상 초유의 제안을 한다. 그는 바로 어떠한 툴도, 목적도 없는 사상 최악의 악당 미치광이 실인광대 '조커'(마이크로저).

마침내 최강의 적을 만나다! 배트맨을 죽이고 고담시를 끝장내버리기 위한 조커의 광기 어린 행각에 도시는 혼란에 빠진다. 조커는 배트맨이 가면을 벗고 정체를 밝히지 않으면 멈추지 않겠다며 점점 배트맨을 조여온다. 한편, 배트맨은 낮엔 기업의 회장으로, 밤에는 가면을 쓴 배트맨으로 밤과 낮의 정체가 다른 자신과 달리 법을 통해 도시를 구원하는 하비 렌트아론으로 진정한 영웅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YTN 02)398-8000 ▶스카이리프 1588-3200
▶한국케이블 TV 방송 협회 060-398-3355

케이블 & 워킹 방송

케이블 & 워킹 방송

▶YTN 02)398-8000 ▶스카이리프 1588-3200
▶한국케이블 TV 방송 협회 060-398-3355

영화·오락

스포츠·레저

뉴스·다큐

음악·애니

◆ OCN
6:00 소원
8:20 크리미널 미드 시즌9
10:10 편즈 위드 베네핏
12:00 저녁 2
13:20 회사원
15:16 흑성들·진화의 시작
17:20 스트리밍
19:30 더 틱(2007)
22:00 신의 한수

◆ 채널 CGV
4:10 도희야
6:30 아일랜드
9:00 무비스토리
10:20 스트레스를 부르는 그 이유
작장사
12:20 좋은날
14:40 브레이브 하트
17:50 다크나이트
20:40 주말N영화
22:00 제제한로맨스

◆ Mnet
8:20 M morning
9:00 하트아워
10:00 빛천한 인터뷰 4기자
11:00 Mnet Music Twit(SNS)
11:30 너의 목소리가 보여
13:00 히트아워
14:00 언프리티 랩스타
15:10 슈퍼스타K7 HOTCLIP
15:30 Mnet SHOW ME THE MONEY 시즌4
17:20 Daily Music Talk(SMS)
18:00 M COUNTDOWN
19:30 슈퍼스타K7 HOTCLIP
19:50 4기자
20:50 Live on M(SMS)
21:30 Mnet 슈퍼스타K7

◆ MBC 스포츠플러스
7:00 2015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우시인 블루 하이리아트
8:00 메이저리그 투나잇
9:00 2015 메이저리그
16:00 2015 KCC 아시아프로농구
챔피언십
18:00 베이스볼 NOW
18:30 2015 타이어뱅크 KBO리그
22:00 베이스볼 투나잇

◆ SBS 스포츠
7:00 야구분석 2
11:00 2015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11:50 2015 세계 청소년 야구선수권
15:00 배드민턴
15:40 결승 범치 with 프렌즈
17:00 2015 베이스볼 S
18:10 2015 타이어뱅크 KBO리그
22:00 2015 베이스볼 S
23:10 2015 FFA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

◆ 온스타일
6:00 WSH
7:00 모던 패밀리 시즌5
8:00 컨트리부티 2015
9:00 달콤한 춤
10:00 더 버디쇼
11:00 유미의 방
11:45 깃털리셀프 2015 송
12:55 깃털리셀프 2015
14:00 셀프리터 끝없는 생존 경쟁
16:00 TV 드라마
19:00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00 취업의 전설
22:00 대박전국

◆ YTN
8:00 이슈 오늘
10:00 뉴스토워
12:00 뉴스 이슈
14:00 후준석의 뉴스 인
16:00 뉴스Q
18:00 뉴스 통
19:30 신율의 시시통팅
20:15 YTN 24
21:00 뉴스만만

◆ 한국경제TV
6:00 금모두의 아침
8:00 출발 증시 특급
10:00 미켓포커스
12:00 재테크 알아야된다
12:30 성공투자 오후 증시
16:00 글로벌 재테크 알아야된다
16:30 한국경제 이슈 N
17:00 성공예감 부동산 재테크
18:00 생방송 부동산 현장
19:00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00 취업의 전설
22:00 세프리터

◆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
9:00 건강한 아침 메디컬 365
9:00 달콤한 춤
10:00 나는 자연인이다
11:00 순간 포착! 위험한 동물들
11:30 TV 드라마
13:00 <위밀드 헤터> 3부. 비정의
무기기 전포자
14:00 세프리터 끝없는 생존 경쟁
16:00 TV 드라마
19:00 나는 자연인이다
20:00 <시크릿 와일드> 3부. 일어
버린 외국
21:00 <천혜의 자연, 오스트레일리아> 4부. 코알라의 숲

◆ MBC 뮤직
7:00 MBC MUSIC HIT SONGS
9:10 슈퍼아이돌
10:40 복면가왕
12:20 EXID의 쇼타임
13:20 프리미콘 콘서트
14:50 무한도전
16:20 복면가왕
18:00 피크리 라이브 소풍
19:00 아이돌 스타그램

◆ 애니맥스
6:00 뜨듯 템파드- 카고와 테리클
7:00 라비안 뉴욕
8:00 경정 고무신 4
9:00 해파리·마니 담마지
10:00 코코몽
13:00 유후와 친구들 3
11:30 꼬마스타 타요3
12:00 헬로 카봇2
13:00 파워풀 인트레인포스
14:00 경정 고무신
16:00 유저 키드비피트
17:00 맥스 스플
18:00 파워레인저 트레인포스

◆ JEI 재능방송
5:00 Roly Roly, Show me the Story
6:00 유후와 친구들 2
7:00 헬로 카봇 2
8:00 라비 시즌 3
9:00 경정 고무신
11:00 머털도사
13:00 라비
14:30 헬로 카봇 2
16:00 뜨듯 템파드- 카고와 테리클
16:30 헬로 카봇 2
17:00 라비 시즌 3
18:00 경정 고무신

TV 프로그램

*문의 ▶ KBS 470-7320 ▶ MBC 220-2348-9 ▶ TJB 281-1101 ▶ SBS 02)369-109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시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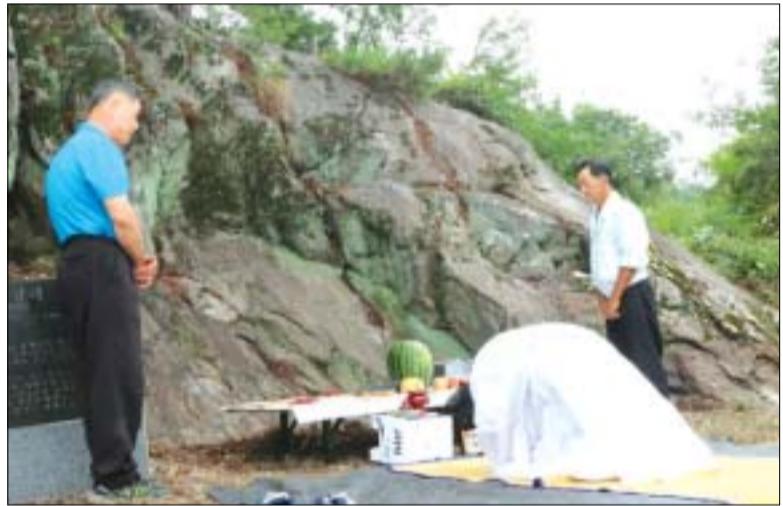
KBS1	KBS2	MBC	9 6	TJB/SBS	CMB	EBS
6:00 KBS 뉴스광장	6:00 방송의 날 기획TV 아침	6:00 MBC 뉴스투데이	6:00 모닝와이드	6:00 정보와 빌려 You're	6:10 세계의 놀	
7:50 인극장	8:00 KBS 아침뉴스스타임	7:50 이브의 사랑	7:50 CMB 라이프	7:00 지피파티스	7:30 콘텐츠 타요	
8:25 아침마당	9:00 TV 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8:30 생방송 오늘아침	8:30 응원을 말습	7:45 보카풀리	8:00 디뮤즈 우주원	
9:30 KBS 뉴스	9:40 여유만만	9:30 MBC 생활뉴스 9:45 기분 좋은 날	9:10 좋은아침	8:15 그림을 그어요	8:45 방송대장 봉봉이	
10:00 종계방송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 새 정치 민주연합	10:40 저녁 뉴스	10:00 SBS 뉴스	10:00 내마리아 어째서	8:45 캐리비의 청학력 평생	9:00 캐리비의 청학력 평생	
10:55 별별가족	11:00 부탁해요, 엄마	11:00 여자를 울려	11:30 내마리아 어째서	9:40 달려겠어요	9:40 달려겠어요	
11:00 KBS 미래포럼	11:00 제4회 한국방송대상 수상작 슈퍼맨이 돌아왔다	12:00 MBC 정오뉴스	12:00 내마리아 어째서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0:3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2:00 KBS 뉴스 12	12:20 제4회 한국방송대상 대상 수상작 슈퍼맨이 돌아왔다	12:15 종계방송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새 정치 민주연합	12:00 콘뉴스	11:00 최고의 요리비결	11:10 다큐오늘	
1:00 KBS 미래포럼	1:30 제4회 한국방송대상 대상 수상작 무한도전 스페셜	1:00 제4회 한국방송대상 수상작 TV동물농장 스페셜	1:00 올클 시즌 9편	12:00 EBS 정오 뉴스	12:00 EBS 정오 뉴스	
2:00 KBS UHD 특선 패션电器	2:00 KBS 뉴스스타임 2:10 생활의 발견	2:00 생방송 투데이	2:00 키친 보스 19편	12:30 연기획- 행복의 교육세상	12:30 연기획- 행복의 교육세상	
3:40 세계인 스페셜	3:50 오늘의 경제	3:00 제4회 한국방송대상 대상 수상작 TV동물농장 스페셜	3:00 콘뉴스	13:00 역사서	13:00 역사서	
5:20 시시진단	4:05 KBS 미래포럼	4:00 내마리아 크레파스 스페셜	4:00 보들라디오	13:30 우당탕탕 아이큐	13:30 우당탕탕 아이큐	
6:00 6시 내고향	5:00 KBS 뉴스 5	5:00 MBC 뉴스파레이드	5:00 회도 삼국지 14편	14:00 곤	14:00 곤	
6:55 시청자칼럼 우리 시는 세상	5:20 시시진단	5:30 바이클론즈	6:00 CMB 뉴스와이드	14:45 캐리비의 풍	14:45 캐리비의 풍	
7:00 KBS 뉴스	6:00 6시 내고향	6:30 SBS 8뉴스	6:30 콘뉴스	15:00 꼬마철학자 휴교	15:00 꼬마철학자 휴교	
7:30 UHD 시대가 열린다	7:30 저녁 뉴스	7:55 내마리아 어째서	7:55 내마리아 어째서	15:15 마리아 모험	15:15 마리아 모험	
8:25 가족을 지켜라	8:30 생생정보	8:55 뜨 너길은 딸	8:55 뜨 너길은 딸	15:40 모피와 친구들	15:40 모피와 친구들	
9:00 KBS 뉴스 9	8:55 비타민	9:30 리얼스토리 눈	9:30 리얼스토리 눈	16:30 빙구대장 봉봉이	16:30 빙구대장 봉봉이	
10:00 2015 KBS 대기획 넥스트 휴먼	10:00 어셈블리	10:00 밤을 걷는 선비	10:00 밤을 걷는 선비	17:00 그림을 그려요	17:00 그림을 그려요	
11:00 KBS 뉴스라인	11:10 해피투게더	11:15 경찰청 사람들 2015	11:15 경찰청 사람들 2015	17:15 두다콩	17:15 두다콩	
11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학교 안전교육에 참석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은 2일 오후 1시 대전교통문화센터에서 초·중·고·특수학교 교감 3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안전관리자체험형 안전교육에 참석 심폐소생술을 직접 시연해 보고 있다.



서구 '좋은 이웃들 봉사단 발대식' 개최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2일 행복한 우리복지관에서 장종태 서구청장, 대한적십자회, 서구자원봉사센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좋은 이웃들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운곡면 효제1리 전통민속마을에 아들바위제 자녀 청양군 운곡면 효제1리(이장 한상운)는 2일 절을마을에 위치한 아들바위 앞에서 마을 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들바위제를 거행했다. 이날 윤주원 운곡면장이 초현관을, 윤하진 노인회 총무가 아현관을, 한상운 이장이 종현관을 맡아 마을의 번영과 자손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제를 지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주시·농어민 건강검진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주시(지사장 정수동)는 시민법인 충남농어민협회 공주시지부(지부장 권한대행 진성언),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가족보건의원(원장 한경천), 공주시 수화통 역센터(센터장 이호준)의 협조를 얻어 9월 2일 오전 8시부터 건강검진의 시작지대에 놓여 있는 공주시 관내 농어민 80여명을 대상으로 공주시종합복지관에서 일반검진, 임금검진(위, 유방, 자궁경부암, 대장암)을 실시하였다.



공공기관 최초로 해외에 한국농수산식품 전용 물류센터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6%의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대중국 농수산식품 시장의 수출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정다오 한국농수산식품 물류센터를 중국 칭다오에 지난달 28일 오픈했다고 2일 밝혔다.

유통전문인력 양성 현장실습 결산 차원... 애로사항 청취 및 격려

우송정보대, 삼성전자 현장실습 간담회

우송정보대학(총장 정상직)은 1일 오후 6시, 대학본부 6층 대회 의실에서 삼성 유동반 현장실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삼성전자와 우 송정보대가 진행 중인 유통전문 인력 양성 현장실습 결산 차원에 서 이뤄졌다. 하계 방학기간 중 4 주간 현장에서 실습했던 재학생 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격려 차원 에서 모인 것이다.

이번 간담회 및 현장실습은 지난 2010년 우송정보대학과 삼성 전자 간에 15명 규모의 '삼성전 자 소매유통반' 개설협약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삼성전자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등 총 18학점의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여 유통전문 인력을 양성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10여명이 삼성 전자 유통관련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전문

적인 지식이 현장의 유통전문가 를 능가하고 있는 것으로 삼성에 서 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간담회



에 참석한 14명의 학생들이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여름 현장실습 을 종료했으며, 삼성그룹의 공개 채용 시험인 삼성직무적성검사(SSAT)와 면접으로 12월경 최종 입사회사가 정해져서 1월부터 정식 근무하게 된다.

특히, 이 같은 협약은 전국에 지역단위로 1~2개 대학과만 협약을 맺은 것으로, 대전·충청 지역에서는 우송정보대학 삼미스터·유통경영과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의 좌장 역할을 수행한 삼성전자 윤강 혁 상무(한국종합 중부지사장)는

"유통부문 우수인력을 안정적 으로 확보하고자 대학과 손을 잡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현장실습을 통해 학생들 의 현장적응을 지원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송정보대학 정상직 총장은 "삼성은 우수 인재를 확보해서 좋고, 우송정보대는 학생들에게 우수 기업 취업을 보장 할 수 있는 만큼, 전문기술을 양성하는데 최선 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반 졸업생들은 전원 삼성전자 유통분야(자회사 및 관 련사)로 진출하게 되며, 취업 시 에 학교경력 인정 및 각종 인센티브 부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내년 1학년부터는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삼성 소매유 풍반 학생에게는 삼성전자 유통부문 입사지원 시에 대전·충청권 대학 중 유일하게 입사기회를 부여하는 프로세스로 변경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이정복기자

●동정 ●●●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김지철 충남 도 교육감 = 3일 오전 10 시 30분에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

서 열리는『제281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세계중소기업포럼



승재희 중소 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 3~5일 3 일간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되는 B20회의와 세계중소기업포럼에 참석. 한편, 5(토)일에는 터키기업연합(TUSKON) 리 차누르 메랄(Rizanur Meral) 회장과 TUSKON 본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터키와 한국 중소기업 간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

목원대 부동산연구교육센터·전국

대학부동산교육협의회 상호 협약

목원대학교(총장 박노권) 부동산 연구교육센터(센터장 정재호)는 2 일(수) 10시, 목원대 건축도시교육 지원센터 503호에서 전국대학교부 동산교육협의회와 공인중개사 실무 및 연수교육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목원대는 대전광역시(국토교통부 위임)로부터 공인중개사 실무 및 연수교육의 위탁기관으로 지정 받아 이에 대전·충남지역의(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직업윤리 및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목원대 부동산 연구교육센터는(개업)공인중개사 실무 및 연수교육, 전문심화과정의 사이버교육에 대한 콘텐츠제공, 향후 경매매수대리인 자격 위탁교육(법원행정처 지정)의 시행 등 공인중개사 전문교육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오는 21일(월)에는 3기 실무교과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김태선기자



국민건강보험 대전본부

2025 뉴 비전 및 미래전략 실천 결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강희관)는 2일 지역본부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생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라는 뉴 비전 및 미래전략의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공단은 지난 6개 월 동안 Bottom-Up 방식으로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업자, 공급자, 학계를 대표하는 전문가의 자문 및 외부 컨설팅을 통해 '뉴 비전 및 미래전략'을 수립해왔다.

현재 건강보험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속속 가능성이 위기,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예방·증진 확대,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안정적 재원관리, ▲현행 보건의료 공급·전달체계와 지불제도의 불균형 해소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송병배기자



서양회가 장철석 대한민국창조문화예술대상 미술부문 대상 수상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대한민국창조문화예술대상(미술부문)에 장철석 작가가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2015 대한민국창조문화예술대상 대회조직위원회와 롤레TV, CBC서울방송에서 주관했으며, 시상식은 지난달 30일 국회의사당현정기념관에서 거행됐다.

인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처장급 전보
 ▲경영지원실 경영노무처장 신성열
 ▲경영지원실 정보관리처장 박찬탁
 ▲KR연구원 설계기준처장 손병우
 ▲호남본부 재산지원처장 오광교
 ◇부장급 전보 ▲경영지원실 경영노무처 노사협력부장 김영균

장평면 풍물단, 축제대비 연습 몰두

제16회 청양고추·구기자 축제 시기행진 대비... 축제 열기 후끈



청양군 장평면 풍물단 단장 김영길이 다가오는 제16회 청양고추·구기자 축제 시기행진 '인심페레이드'를 대비해 지난달 29일부터 면사무소 광장에 모여 연습에 몰두하고 있어 축제의 열기가 후끈 닦아 오르고 있다.

20여명의 단원들은 오는 4월 축제 개막일에 청양초등학교 운동장에서부터 축제장까지 행진하는 인

심페레이드 참여를 위해 바쁜 농사 일을 뒤로하고 피곤함을 달래며 자발적인 참여 속에 늦은 밤까지 연습에 여념이 없다.

장평면은 이번 행시에 주민 100여 명이 참여해 당일 만장기 편성에 편성에 여념이 없다. 장평면은 이번 행시에 주민 100여 명이 참여해 당일 만장기 편성에 편성에 여념이 없다.



중구,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 중구(구청장 박용갑) 산성동주민센터(동장 장세근)는 1일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대식을 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식에는 2차 참여자를 포함한 120명이 참여해 도심 잠초제, 쓰레기 줍기 등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충남대병원 치매센터 강사로부터 치매예방 교육을 받았다.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학교폭력예방 선서

하나. 우리는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를 보면 양설이지 않고 도와줄 것입니다.

하나. 우리는 올바른 정신과 건강한 몸을 통해 학교폭력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주관 | 大田투데이 ODTN

주원 대전문화체육관광부	한국여성재활원	한국여성재활원	한국여성재활원	한국여성재활원	한국여성재활원
한국여성재활원	한국여성재활원	한국여성재활원	한국여성재활원	한국여성재활원	한국여성재활원
한국여성재활원	한국여성재활원	한국여성재활원	한국여성재활원	한국여성재활원	한국여성재활원